

연곡사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 문헌 고찰

황 호 균*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2. 현각·진정전책의 중창 |
| II. 사명 유래와 지리지·고지도 | 3. 조선전기 기록 |
| 1. 사명유래 | 4. 소요태능·동파정심의 중창 |
| 2. 지리지와 고지도 | 5. 구한말 고광순 의병활동과 근대기 중수 |
| III. 연곡사의 역사적 변천과 발자취 | 6. 한국전쟁기 수난과 현대 불사 |
| 1. 연곡사 창건과 연기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연곡사에는 유서 깊은 전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훌륭한 석조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비록 세 차례의 병화에 대부분 불타버리고 석조문화재들만이 남겨진 것은 아쉽지만 국보 보물로 지정된 석조문화재에서 당대 최고의 선승들이 남긴 발자취들이 완연하다.

연곡사는 국보 2점(동승탑, 북승탑)과 보물 4점(삼층석탑, 동부도 비, 현각선사 탑비, 소요대사 승탑)의 문화재를 통해 신라 말기에서부터 고려 초기에 걸쳐 가장 크게 선풍(禪風)을 휘날린 선종 사찰임을 웅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문헌 자료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발자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두 차례의 미술사와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고지리지와 고지도, 조선왕조실록, 지리산 유람기, 문집에 실린 제영시 까지도 살펴서 부족한 연곡사의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자료들을 모두 모았다. 그러한 후에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智異山 鰲谷寺 事蹟記」를 심층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 / 前) 전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관 / 남도불교문화연구회 회장 역임 / 現)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논문접수일 : 2020. 10. 12., 논문심사일 : 2020. 12. 02., 게재확정일 : 2020. 12. 10.

그 결과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역사적 신빙성이 발견되어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자세히 다루어 보았다.

이러한 연곡사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역사적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곡사의 발자취가 더욱 풍성해지고 자세한 연표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연곡사 창건시기와 창건주 연기조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 역사적 실체에 접근해 보았다. 아울러 고려시대의 현각선사와 진정국사 천책의 중창이 있었음을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임진왜란 시기인 1598년(선조 31) 4월 10일에 왜군들에 의한 방화로 소실되었다. 조선후기의 소요태능이 대대적인 중창을 거듭한다. 이후 동파정심선사가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1907년 고광순 의병 등 일본군과 전투 중 대부분의 당우들이 소실되었다. 1910년에 손범성(孫梵城) 종현선사(宗炫禪師)가 소란(小蘭)을 중건하였다. 1924년 박승봉이 경내에 심우암 창건하여 손범성 스님이 절을 운영하였다. 1928년에 철운당(鐵雲堂) 현주화상(玄周和尚) 대웅전 중건하였다.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 피아골 전투로 소실되었다. 1965년에 대웅전과 요사채를 겸한 인법당 건립되었다. 1981년에 종인화상이 대적광전 준공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불사를 거듭하여 일주문, 종각, 수각, 천왕문, 요사채, 삼홍루, 방장문(종무소), 월유문(주지실), 대적광전, 명부전, 관음전, 삼성각, 템플스테이 숙소 등 10여 동의 건물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주제어 : 연곡사, 연곡사의 역사적 변천, 연곡사 문헌, 지리산 연곡사 사적지, 종현선사, 종인화상

I. 들어가는 말

연곡사에는 비록 유서 깊은 전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훌륭한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옛 찬란한 역사를 말없이 웅변하는 듯하다. 비록 세 차례의 병화에 대부분 불타버리고 석조문화재들만이 남겨진 것은 아쉽지만 동승탑(국보 제53호, 9세기 후반 경, 870년 이전)과 삼층석탑(보물 제151호, 9세기 후반 경)을 비롯해 북승탑(국보 제54호, 고려 초기, 979년 이전), 동승탑비(보물 제153호, 고려 초기), 현각선사 탑비(보물 제152호, 979년), 소요대사탑(보물 제154호, 1650년)과 같은 석조문화재에서 당대 최고의 선승들이 남긴 발자취들이 완연하다.

연곡사는 국보 2점(동승탑, 북승탑)과 보물 4점(삼층석탑, 동부도 비, 현각선사

탐비, 소요대사 승탑)의 문화재를 통해 신라 말기에서부터 고려 초기에 걸쳐 가장 크게 선풍(禪風)을 휘날린 선종 사찰임을 웅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문헌 자료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발자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두 차례의 미술사와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자료¹⁾뿐만 아니라 각종 고지리지와 고지도, 조선왕조실록, 지리산 유람기, 문집에 실린 제영시 까지도 살펴서 부족한 연곡사의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자료들을 모두 모았다. 그러한 후에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²⁾를 심층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역사적 신빙성이 발견되어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자세히 다루었다.

이러한 연곡사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역사적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곡사의 발자취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아 보았다.

II. 사명 유래와 지리지·고지도

1. 사명 유래

연곡사는 ‘燕谷寺’ 혹은 ‘鷲谷寺’로 한자 표기도 다를 뿐 아니라 그 유래에 대해서도 기록마다 다른 내용을 전한다. 이른바 ‘제비 출현설’과 ‘제비집 형국설’, ‘연곡동 지명 유래설’ 등이 그것이다.

절 이름이 비롯된 내력에 대해서는 “연기조사가 처음 이곳에 와서 풍수지리를 보고 있을 때 현재의 법당 자리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을 유심히 바라보던 중 가운데 부분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더니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간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연못을 매우고 법당을 짓고 절 이름을 연곡사(燕谷寺)라 했다.”는 설화가 전한다.³⁾ 이러한 설화에 담긴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하나는 풍수지리를 살피는 내용이나 연기조사라고 한 점에서 『東師列傳』(1894년)에

1)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1993, 전남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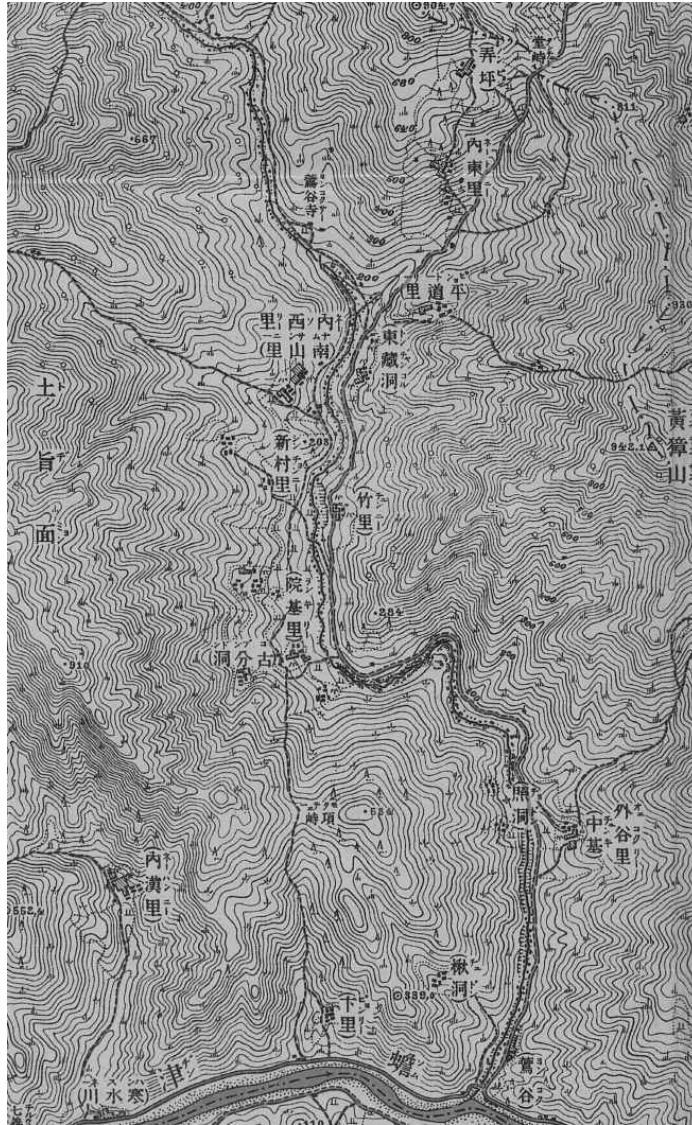
강삼해,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查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2013, (재)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연곡사.

2) 이 연곡사 사적기는 曼宇 鄭秉憲이 1924년 11월에 집록한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의 부록으로 실린 필사본이다.

3) 이상구 외, 2009, 『지리산권 불교설화』,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81쪽.

기록된 도선을 연상시킨다.⁴⁾



朝鮮五万分一地形圖[花開場(順天五號),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大正 7년(1918년)]

4) 「道說國師傳」, 1894년(탈고), 1957년(간행), 『東師列傳』.

범해 撰·김윤세 譯, 1994, 『(완역본)동사열전 :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46쪽·49쪽.

“도선(道詵)의 호는 연기(煙起)이다. ... 전남 구례 연곡사(燕谷寺)에 부도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선의 부도이고 하나는 그의 어머니의 부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비집 형국과 관련된 설화인데 “그 이름을 모가령이라 한 것은 풍수가들이 절을 제비집의 형국으로 생각했으니 이 고개는 새끼들이 떼 지어 앉은 들보가 아니겠는가? 새끼는 어미 가까이에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는 이언근(李彦根)이 기록한 『유방장록(遊方丈錄)』(1753, 1756)은 절을 제비집의 형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이후 『求禮續誌』(1925년)에 “지형이 제비의 집과 같아서 연곡이라는 절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단편적인 내용만 계승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작성된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 11월)에는 “반야봉 법왕대 아래 연곡동에 있는 고로 연곡사라 이름 하였다.”라고 전혀 다른 내용을 등장시켰다.⁵⁾

구체적인 표현은 다르나 크게 보면 모두 제비와 관련되었다. 제비가 출현한 제비집 형국이고 그 지역이 연곡동이어서 연곡사로 이름 지었다는 내용만 전한다. 그 어디에도 연기조사의 연기(緣起, 鷲起)나 연기조사가 타고 다닌다는 머리는 용이고 몸뚱이는 거북이며 날개가 달려있어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신비의 동물인 ‘鷲’에서 따왔다는 이야기조차도 없다.

‘연곡(鷲谷)’이란 지명은 조선후기 고지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조선반도 5만분의 1 지도>(1918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섬진강변에서 피아골로 올라가는 초입 ‘기촌(基村)’마을 바로 앞에 ‘연곡(鷲谷)’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한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피아골’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반야봉 법왕대 아래 ‘연곡동’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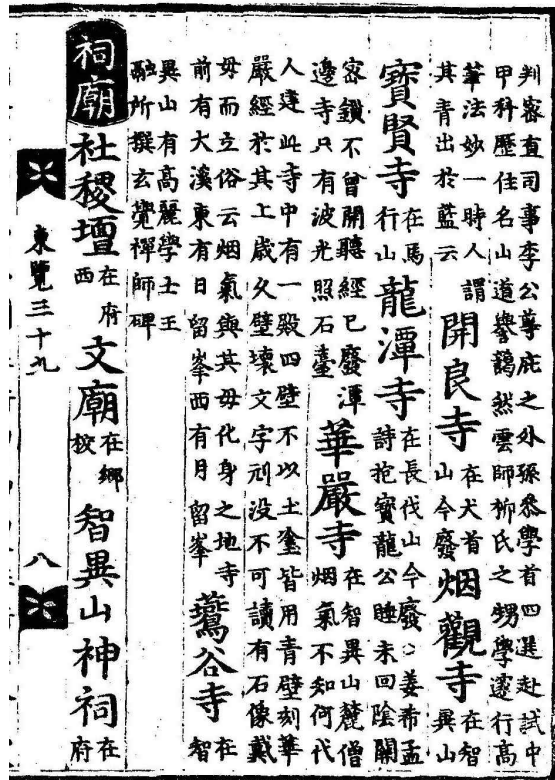
2. 지리지와 고지도

그동안 연곡사의 창건 시기와 창건주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다. 가장 오래된 지리지인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는 단순히 “지리산에 소재한다”는 내용과 “高麗學士 王融이 지은 玄覺禪師碑가 있다”는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⁶⁾ 이후 각종 지리지에서는 위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정도 수준의 기록만이 전한다. 『梵宇考』(1799년)에는 그동안 알려지던 시기(1895년경 이후)와는 다르게 ‘今廢’라는 표현이 느닷없이 등장한다. 그러다가 『鳳城誌』(1800년경)에 이르러서 갑자기 내용이 풍성해진다. 우선 ‘佛宇條’에는 그동안

5) 曼宇 鄭秉憲이 1924에 집록한 기록[「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附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

6) 연곡사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의 남원도호부와 구례현의 불우조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구례현은 신증편에 수록되었다. 신증편이 아닌 남원도호부 본편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1481년 이전의 인식으로 보아야 한다.

『輿地圖書』(1757년~1765)에 서부터 ‘在縣東五十里’로 거리를 표현하던 것을 ‘在縣東四十里’로 ‘十里’를 축소한 정보를 신는다. 나아가 ‘栗木封山之所’이라거나 玄覺碑가 “倭亂後字劃剝落今則仆碎仆時寺之南山鳴三日云”라며 왜란 이후 글자 획의 박락으로 지금 넘어져서 깨지게 되자 절의 남쪽 산이 사흘 동안 울었다고 한다. ‘題詠條’에는 창건 시기를 스님의 전언을 빌어 ‘조선(祖禪)’이라 했으며 ‘대문’은 임진년과 계사년의 병화 속에 온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비석’에는 태평을 누리던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거나 ‘누’에 올랐다는 좀 색다른 내용도 기록하였다.⁷⁾ 이후 1924년에 기록한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에는 보다 풍성한 내용들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求禮續誌』(1925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南原都護府) 鷲谷寺

7) 『鳳城誌』(1800년경) 題詠條 “연곡사를 어느 때에 창건하였던가? 스님은 말하기를 조선(祖禪)이라네. 대문은 임진년과 계사년의 병화 속에 온전히 남아 있고 비석에는 태평을 누리던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선줄에 기원한 달수가 차니 단언 향기 약해지고 법등을 받아 전하는 부처의 말씀이 현묘하다. 누 오르니 옛 생각도 많아지는데 낙엽을 밟으며 차가운 샘 소리를 듣는다.”

<표 1> 지리지의 연곡사 山寺名과 폐사관련 표현

번호	기록명	연대	산명	사명	조항	폐사 여부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南原都護府) [(新增)求禮縣]	1530년 (1481년)	智異山	薦谷寺	佛宇條	
2	『東國輿地志』(求禮縣)	1656년	智異山	薦谷寺	寺刹條	
3	『輿地圖書』 (求禮縣順天鎮管)	1757년~ 1765년	智異山	薦谷寺	寺刹條	
4	『伽藍考』	18세기 후반	智異山	薦谷寺	寺刹條	
5	『梵宇考』(南原)	1799년	智異山	薦谷寺	寺刹條	今廢
6	『梵宇考』(求禮)	1799년	智異山	薦谷寺	寺刹條	
7	『鳳城誌』	1800년경	智異山	薦谷寺	佛宇條	
8	『鳳城誌』	1800년경	智異山	薦谷寺	題詠條	
9	『湖南邑誌』(求禮縣)	1872년경	智異山	薦谷寺	寺刹條	
10	『湖南邑誌』(求禮縣)	1895년	智異山	薦谷寺	寺刹條	
11	『太古寺法』	1905년경	智異山	薦谷寺		
12	<智異山薦谷寺事蹟記>	1924년	智異山	薦谷寺		
13	『求禮續誌』	1925년	智異山	薦谷寺		

‘연곡사’를 언급한 지리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① <佛宇> 薦谷寺 在智異山有高麗學士王融所撰玄覺禪師碑(『新增東國輿地勝覽』卷39, 南原都護府·(新增)求禮縣 佛宇條 : 1530년 / 『東國輿地勝覽』 : 1481년)
- ② <寺刹> 薦谷寺 在智異山有高麗學士王融所撰玄覺禪師碑(『東國輿地志』卷5下, 求禮縣 寺刹條 : 1656년)
- ③ <寺刹> 薦谷寺 在縣東五十里智異山有下(『輿地圖書』, 全羅道 求禮縣順天鎮管 寺刹條 : 1757년~1765)
- ④ 薦谷寺 在智異山 縣東五十里(『伽藍考』, 求禮 寺刹條 : 영조연간 18세기 후반)
- ⑤ <寺刹> 薦谷寺 俱在智異山今廢○有高麗學士王融所撰玄覺禪師碑(『梵宇考』, 南原 寺刹條 : 1799년)
- ⑥ <寺刹> 薦谷寺 俱屬南原(『梵宇考』, 求禮 寺刹條 : 1799년)
- ⑦ <佛宇> 薦谷寺 在縣東四十里智異山南麓栗木封山之所高麗學士王融所撰玄覺碑在焉倭亂後字宇剝落今則仆碎仆時寺之南山鳴三日云(『鳳城誌』,

佛宇條：정조연간 1800년경)

- ⑧ <題詠> 鷺谷寺 鷺寺何時創僧言自祖禪門全壬癸火碑記太平年結願檀烟細
傳燈佛語玄登樓多古意落葉聽寒泉(『鳳城誌』, 題詠條：정조연간 1800년경)
- ⑨ <寺刹> 鷺谷寺 在縣東四十里智異山南麓栗木封山之所高麗學士王融所撰
玄覺碑在焉倭亂後宇劃剝落今則仆碎仆時寺之南山鳴三日云(『湖南邑誌』,
求禮縣 寺刹條：1872년경)
- ⑩ <寺刹> 鷺谷寺 在縣東四十里智異山南麓栗木封山之所(『湖南邑誌』 第18
冊, 求禮縣邑誌 寺刹條：1895년)
- ⑪ 鷺谷寺 在求禮郡智土地面智異山 大本寺華嚴寺末寺(『太古寺法』：1905년
경)
- ⑫ 연곡사(鷺谷寺)는 반야봉 법왕대(法王臺) 아래 연곡동에 있는 고로 연곡사
라 이름 하였다. 서기 544년 신라 진흥왕 때 인도스님 연기조사(緣起祖師)
가 창건하였다. 조사께서 만년에 세상을 피해 살기 위한 장소로서 지었
다...(이하 부록에 전문 수록, 曼宇 鄭秉憲 집록, 「附 智異山 鷺谷寺 事蹟
記」,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1924년 11월)
- ⑬ 鷺谷寺 在郡東五十里土地面燕谷中東有花開面有文殊地如鷺巢故稱鷺谷
而因爲寺名新羅眞興王六年丙寅緣起祖師創建我 宣祖壬丁間兵火燒盡 仁
祖五年丁卯逍遙大師重建高麗成宗時學士王融所撰玄覺禪師碑被(破)壬丁
兵火我 純祖時仆碎仆時寺之南山三日鳴云隆熙元年九月十日寺因義兵燒
盡時義兵將高光洵留寺累日竟爲日兵所銃殺後雙溪寺僧孫梵成重建茅庵蓋
鷺谷卽栗木封山宗廟神主材出于此每當式年自朝家送敬差官我材寺係封山
故摠攝職帖都提調出差○黃鉉詩寺古佛堂無畫圖惟存一塔倚雲高曉天星漢
正搖落空谷水風相激呼村近竹間通吠犬齋休殿角集神鳥萬株洞栗誰栽得樹
樹青黃境絕殊又挽高義將詩曰千峯鷺谷鬱蒼蒼小劫虫(忠)沙祭國殤戰馬散
從禾攏臥神鳥齊下樹陰翔我曹文字終安用名祖家孫不可當 獨向西風彈熱
淚新墳突兀菊花傍(『求禮續誌』, 佛宇條：1925년)

고지도에는 지리산에 연곡사의 사명을 적고 건물(주불전, 누각)을 채색으로 그
렸다. 건물은 『東輿備攷』(全羅道左右州郡總圖, 1682년경)부터 『大東輿地圖』(第十
八帖 11面, 1861년)까지 주불전 1동만 그렸으나 『朝鮮後期地方地圖』(求禮縣, 1872
년)에서는 처음으로 앞쪽에 누각까지 더 묘사하였다.

〈표 2〉 조선 후기 고지도에 나타난 연곡사寺名과 묘사 건물

번호	지도명	출전	제작 연대	사명	건물
1	全羅道左右州郡總圖	『東輿備攷』	1682년경	燕谷寺	건물 1동 채색
2	求禮縣順天鎮管	『輿地圖書』	1757년~1765년	燕谷寺	건물 1동 흑백
3	求禮縣	『海東地圖』	1765년경	燕谷寺	건물 1동 채색
4	求禮縣	『地乘』	1776년~1787년	燕谷寺	건물 1동 채색
5	第二十二層 十三版	『靑邱圖』	1834년	燕谷寺	×
6	求禮縣	『廣輿圖』	19세기 전반	燕谷寺	건물 1동 채색
7	第十八帖 11面	『大東輿地圖』	1861년	燕谷寺	×
8		『大東方輿全圖』	1861년 이후	燕谷寺	×
9	求禮縣	『朝鮮後期地方地圖』	1872년	燕谷寺	건물 2동 채색 (앞면 누각)
10	求禮縣邑誌	『湖南邑誌』	1872년경	薰谷寺	건물 1동 흑백
11	求禮縣邑誌	『湖南邑誌』	1895년	薰谷寺	건물 1동 흑백



해동지도(1765년경) 燕谷寺, 栗木封山

‘연곡사’의 사명과 건물이 그려진 고지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燕谷寺 동여비고(1682년경), 화엄사 향 좌측에 사명과 목조기와건물 1동 채색(『東輿備攷』, 全羅道左右州郡總圖, 1682년경)
- ② 燕谷寺 여지도서(1757년~1765년), 화엄사 향 우측 하단에 사명과 목조기와건물 1동 흑백(『輿地圖書』, 求禮縣順天鎮管, 1757년~1765년)
- ③ 燕谷寺 해동지도(1765년경), 화엄사 향 우측 하단에 사명과 목조기와건물 1동 채색 / 위에 栗木封山(『海東地圖』,

求禮縣, 1765년경)

- ④ 燕谷寺 지승(1776년~1787년), 화엄사 향 우측 하단에 사명과 목조기와건물 1동 채색(『地乘』, 求禮縣, 1776년~1787년)
- ⑤ 燕谷寺 청구도(1834년), 화엄사 향 우측에 사명만 등장(『靑邱圖』, 第二十二層 十三版, 1834년)
- ⑥ 燕谷寺 광여도(19세기 전반), 화엄사 향 우측 하단에 사명과 목조기와건물 1동 채색(『廣輿圖』, 求禮縣, 19세기 전반)
- ⑦ 燕谷寺 대동여지도(1861년), 화엄사 향 우측에 사명만 등장(『大東輿地圖』, 第十八帖 11面, 1861년)
- ⑧ 燕谷寺 대동방여전(1861년 이후), 화엄사 향 우측에 사명만 등장(『大東方輿全圖』1861년 이후)
- ⑨ 燕谷寺 조선후기지방지도(1872년), 화엄사 향 우측 하단에 사명과 누각과 목조기와건물 각 1동 채색 / 自官文東距四十里 / 위에 栗木封山(『朝鮮後期地方地圖』, 求禮縣, 1872년)
- ⑩ 鷲谷寺 구례현읍지(1872년경), 화엄사 향 우측 상단에 사명과 목조기와건물 1동 흑백(『湖南邑誌』, 求禮縣邑誌, 1872년)
- ⑪ 鷲谷寺 구례현읍지(1895년), 화엄사 향 우측 하단에 사명과 목조기와건물 1동 흑백(『湖南邑誌』, 求禮縣邑誌, 1895년)

III. 연곡사의 역사적 변천과 발자취

연곡사의 지나온 역사적인 변천상을 알아보기 위해 통일신라시대의 연곡사 창건과 연기, 고려시대 현각·진정천책의 중창과정과 조선시대 정유재란 이전의 중수 기록을 우선 다루어 보았다. 이후 조선시대 정유재란 이후 소요태능·동파정심의 중창과 구한말 고광순 의병활동과 근대기 중수, 한국전쟁기 수난과 현대 불사 과정도 빼놓지 않았다.

1. 연곡사 창건과 연기

연곡사는 삼층석탑과 동승탑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으로만 보더라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정확한 창건 연대와 창건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연곡사의 창건 시기와 창건주에 대해서는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

년 11월)에 의해 “서기 544년 신라 진흥왕 때 인도스님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하였다. 조사께서 만년에 세상을 피해 살기 위한 장소로서 지었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⁸⁾ 하지만 이보다 400년 정도 앞선 기록인 逍遙 太能(1562~1649)의 시 <題燕谷寺壁上>에서 “연기조사(燕起祖師)가 처음 이 절 짓고 간 뒤”라며 초창을 읊고 있다.⁹⁾ 이로 미루어 적어도 태능이 연곡사를 중창한 시기인 1627년(인조 5)경에는 ‘燕起祖師’를 연곡사 창건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 11월)에는 ‘인도스님 연기조사(緣起祖師)’, 『求禮續誌』(1925년)에는 ‘연기조사(緣起祖師)’로 각색되어 계승되었다.

다만 창건연대는 ‘신라 진흥왕때설’과 ‘新羅眞興王六年丙寅설’, ‘祖禪설’ 정도만 문헌에 등장한다.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 11월)에는 ‘新羅眞興王때’로 국왕 이름만 기록하였고 1년 뒤인 『求禮續誌』(1925년)에 ‘眞興王六年丙寅’이라는 재위 연대와 간지를 추가하였다. 진흥왕 즉위 초 병인년은 사실상 547년이다.¹⁰⁾ 또 다른 내용으로는 『鳳城誌』(1800년경) ‘題詠條’에 창건 시기를 스님의 전언을 빌어 ‘조선(祖禪)’이라고 한 대목이다. 여기서 ‘조선(祖禪)’은 화엄사 쪽에서 연기조사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도선국사를 禪의 조상으로 인식하는 듯한 어감도 느껴진다.

다음으로 ‘연기조사(緣起, 鷲起, 煙起)’라는 인물을 어떻게 인식해 왔느냐는 문제이다. 인도스님이라는 다소 전설적 인물인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 기록된 ‘연기조사(緣起祖師)설’과 화엄사와 연곡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화엄경 사경을 조성한 원주 황룡사 승려이자 신라 경덕왕대 역사적 실존인물 ‘연기(緣起)법사설’, 그리고 화엄종 사찰인 화엄사와 연곡사를 선종사찰로 변모시킨 『東師列傳』(1894년)에 등장하는 연기(煙起)라는 호를 쓰는 ‘도선국사설’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기서 ‘燕起’와 ‘鷲起’는 연곡사의 창건주로 거론될 때만 등장하는 한자 표기법이다.

연곡사 창건주로 알려진 연기는 화엄사를 창건한 황룡사 승려 연기(緣起, 煙起)로 추정되고 있다.¹¹⁾ 그동안 연기(緣起, 鷲起, 燕起, 煙起)는 화엄사와 연곡사를 창

8) 鄭秉憲, 1924, 「附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9) 太能, <題燕谷寺壁上>, 「逍遙堂集」, 『韓國佛教全書』 8~190쪽.

『한글대장경』 164, 1978, 동국역경원, 65쪽.

노산 이은상이 1938년에 <지리산탐험기> <19. 燕谷洞의 매미소리>에 의하면 절의 초창(初創)은 저 화엄사의 초창자인 연기의 손에서 되었다 전한다고 한다.

10) 진흥왕은 540년에 즉위하였으므로 진흥왕 6년은 실질적으로 545년에 해당되나 왕 재위년과 간지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간지의 연대를 더 신빙성 있게 선택해야 한다.

11)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4쪽.

건한 전설적인 인물로만 생각되어 왔다. 다행히도 1978년에 신라 경덕왕대의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 755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이 발견되어 연곡사와 화엄사의 창건조사로 전해지는 연기는 경덕왕대의 실존 인물이라는 점과 그가 화엄경 사경(80권 본)을 발원 제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50권 말미의 발문에 의하면 754년(경덕왕 13)에 황룡사(皇龍寺) 승려 연기법사(緣起法師)가 발원하여 사경이 이루어졌으며 화엄사 석탑에서 전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¹²⁾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연기의 저서로 「大乘起信論珠綱」 3권(혹은 4권), 「大乘起信論捨繁取要」 1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저서는 오늘날 전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가 당시 뛰어난 화엄종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 화엄경 사경의 발문에 따르면 황룡사의 緣起는 경덕왕 13년(754년) 8월 1일에 화엄경을 베끼기 시작하여 6개월 14일 만인 그 이듬해 2월 14일(부처님 열반전일)에 완성했다는 것이다. 연기가 사경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은혜를 주신 아버님의 원(父願)을 위한 것이고 일체의 중생을 모두 성불케 하고자 하는 대의명분도 내세웠다. 또한 사경의 발문 끝에는 사경 조성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기록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사경 조성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를 담당한 紙作人·經筆師의 거주지가 전라도 지역인 무진주와 완산주이고 經心匠·佛菩薩像筆師·經題筆師는 王京(경주) 사람이다. 이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사경은 무진주·완산주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좀 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왕경인에 의해 행해졌다고 이해된다. 신라 화엄경사경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연기가 창건한 화엄사에서 조성되어 화엄사의 탑 속에 사리 대용품인 법신사리로 봉안되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연기가 창건한 사찰은 화엄사·연곡사와 함께 興德 烟起寺·羅州 雲興寺·求禮 泉隱寺·昆陽 栖鳳寺·山淸 大源寺 등이 있다고 한다.¹³⁾

태능의 시는 연곡사 창건주를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조선 후기 연곡사 중창주였던 소요태능(逍遙 太能, 1562~1649)의 시 <題燕谷寺壁上>(1627년경)에

12) 黃壽永, 1979, 「新羅 景德王代의 白紙墨書華嚴經」, 『歷史學報』 83, 122쪽.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10, 44~50(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一~十, 四十四~五十), 국보 제196호, 사경(寫經), 크기(세로 29cm, 가로 1390.6cm), 2축, 종이, 754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연기법사가 간행을 시작하여 다음 해인 755년에 완성한 것으로, 사경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19명의 사람에 대해 자세히 적고, 사경 제작방법과 그에 따른 의식절차를 적은 간행 기록이 남아 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13) 韓國佛敎所究院, 1978, 『華嚴寺』, 一志社, 20쪽.

서 연기조사(燕起祖師)가 초창했다고 읊고 있다.¹⁴⁾ 여기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연기(燕起)’라는 한자 표현이 주목된다.

시기적으로는 신라 경덕왕대 역사적 실존인물 ‘緣起법사 창건설’이 가장 빠르나 화엄경 사경의 발문에서는 연곡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 11월)에 처음 등장하는 ‘인도스님 緣起祖師 창건설’도 그 실체를 고증하기 어렵다. 그나마 소요태능이 1627년경에 거론한 ‘燕起祖師 창건설’이 그나마 가장 빠른 시기의 인식으로 가장 주목된다. 여기에서 말한 燕起祖師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실존 인물인 ‘緣起법사’를 거론한 것은 분명 아닌 듯하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처음 등장한 인도스님 ‘緣起祖師 창건설’보다는 ‘煙起’라는 호를 쓰는 ‘도선국사’가 연곡사의 창건주로 거론될 때만 燕谷寺를 창건한 창건주라는 의미의 ‘燕起祖師’로 변모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도선국사(827년~898년)의 활동시기와 사지발굴의 고고학적인 유물도 일치하며 통일신라 말 즉 9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는 동승탑이나 삼층석탑의 편년도 시기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東師列傳』(1894년)의 「道說國師傳」에 연곡사와 도선(827~898)과의 연관성이 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스님의 법명은 도선(道說)이고 자는 옥룡(玉龍), 호는 연기(煙起)이며 성의 최(崔)씨이다. ... 중략 ... 전남 구례 연곡사(燕谷寺)에 부도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선의 부도이고 하나는 그의 어머니 부도이다.”¹⁵⁾ 이로써 선종에 입문하기 전 화엄사에서 화엄경을 독습한 기록으로 미루어 도선이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9세기 중후반에 선종사찰로서 연곡사가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¹⁶⁾

14) 太能, <願燕谷寺壁上>, 「逍遙堂集」, 『韓國佛教全書』 8~190쪽.

『한글대장경』 164, 1978, 동국역경원, 65쪽.

15) 「道說國師傳」, 1894년(탈고), 1957년(간행), 『東師列傳』.

범해 撰·김운세 譯, 1994, 『(완역본)동사열전 :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46쪽·49쪽.

또한 도선국사 승탑으로 추정되는 탑이 광양 옥룡사에 파편으로 전하고 있어 연곡사 부도가 도선의 승탑일 가능성은 희박하다.(崔仁善, 1997,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道說의 浮圖殿址와 石棺」, 『문화사학』 6·7호, 371~411쪽.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고』, 학연문화사, 305~311쪽.)

16)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證聖慧燈 塔碑文」(1150년 비 건립, 고려 문신 최유정 지음)에는 도선이 선종에 입문한 후 856년경 지리산 獻崔의 암자에서 정진하며 음양오행을 연구한 내용과 구례 현에 道說寺를 창건하고 이 밖에 米姑寺·三國寺·雲岩寺를 창건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이지관, 1996,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436·448쪽.)

신라 말 헌강왕대에 道詵이 화엄사의 도량을 넓혀 총림대도량을 열었고 동리산 문 태안사(지금의 곡성 태안사)는 동리산문의 방계인 도선의 옥룡사파가 명종 2년(1172년) 도선의 비를 세우는 일에 화엄사 僧衆들이 동원되는 일도 있는 등 연곡사와 도선은 상당부분 관련성이 있다. 『동사열전』에서 도선의 호를 연기조사라 하거나 태안사 대웅전을 중창(1755년)한 동파정심(桐坡定心) 禪師가 1779년에 대웅전을 중건할 정도로 지속적인 교류도 있었다.

이렇듯 緣起(혹은 煙起)는 조선 후기나 일제강점기 때에는 연곡사 정도의 사찰 창건주로만 이해되어 오다가 1979년에 8세기 중엽 화엄사의 창건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그 실체를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화엄사와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 연곡사도 전해오는 기록대로 화엄사의 창건주였던 緣起(혹은 煙起)가 8세기 중엽 경에 창건한 사찰로 여겨진다.¹⁷⁾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료나 고고학적 유물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개연성에 기초한 추정일 뿐이다.

연곡사 창건주인 연기는 화엄종 승려로 보여진다. 화엄종찰인 화엄사를 창건하고 754~755년에 신역「화엄경」을 사경하였으며 그의 저술 가운데 「화엄경」에 관한 「開宗決疑」30권, 「要決」12권(혹은 6권), 「眞流還源藥圖」1권이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므로 연곡사도 처음에는 인근 화엄사의 영향권 안에서 사찰의 기틀을 마련한 화엄종에 속한 사찰이었다고 생각된다.¹⁹⁾ 이러한 주장 역시 8세기 중엽 경의 연곡사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고고학적인 유물이 등장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다.

이후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에 연곡사는 화엄 도량인 화엄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참선 도량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동승탑(국보 제53호, 9세기 후반경, 870년 이전), 삼층석탑(보물 제151호, 9세기 후반경)을 비롯해 북승탑(국보 제54호, 고려 초기, 979년 이전), 현각선사 탑비(보물 제152호, 979년), 동승탑비(보물 제153호, 고려 초기)가 모두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되어진 것으로 선종계통의 불교문화가 꽃을 피운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²⁰⁾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가람 배치 흔적으로만 보면 연곡사는 화엄 도량에서 참선 도량으로 변모했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참선 도량이었을 정황이 지배적이다.

17)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4쪽.

18) 李基白, 1979,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83.

19)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4쪽.

20)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4쪽.

2. 현각·진정천책의 중창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통일신라시대 즉 870년 이전에 사찰을 창건하여 동승탑과 삼층석탑을 조성한 전시대의 역사를 이어받은 세력에 의해 10세기 중엽 경에 동승탑비(나말여초, 고려초기), 북승탑(979년 직전), 현각선사탑비(979년), 삼층석탑 봉안 금동여래입상(고려 초)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는 현각선사가 연곡사에 머물면서 중창하던 때이다. 고려 원종(1260~1274) 때에는 진정국사 천책에 의해 법당이 중건된다.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현각선사의 법당 중창과 선교종풍(禪敎宗風)을 크게 떨친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신라말 고려초 현각(玄覺)선사가 법당을 짓고 선교종풍(禪敎宗風)을 크게 떨쳤다. 선사께서는 선교(禪敎)를 널리 베풀어 하늘과 사람에 선교문답(禪敎問答)으로서 제시(提撕: 널리 베풀어 줌)했다. 지리산 16대사 제문(祭文)을 지어 이르기, 「진감국사(眞鑑國師)께서는 서역과 중국에서 구도(求道)하시어 신라를 교화하시러 오셨으며 현각국사(玄覺國師)께서 널리 선교를 베푸시어 음양(陰陽)의 이치를 겸 하셨습니다.”라며 현각선사를 칭송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현각선사 법어도 소개하고 있다. “현각선사 법어(法語)일절<선교대변> 문 정(情)을 잊고 이(理)에 합(契)하는 것이 보살과 조사는 어떻게 다른고? 답) 이치에 합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교(敎)에 의지하여 이(理)합하는 것은 대승보살과 같다. 부처님이 소승(小乘)을 말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 소승은 비록 대승(大乘)을 말해도 막히지 않는다. 대승은 이사(理事)로 말해도 막히지 않는다. 이사로서 공색(空色)을 말하여도 막히지 않는다. 공색으로 진속(眞俗)을 말해도 막히지 않는다. 진속(眞俗) 오승(五乘: 해탈을 이르게 하는 교법을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인승(人乘), 천승(天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 말한다.) 모든 법이 한자(一字) 일구(一句)도 무너지지 아니해 가명(假名)으로도 원융(圓融)하다. 원융은 두 가지로 모인다. 선(禪)에 의지하여 이(理)에 합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대승을 말하여도 본래 대승은 없고 소승을 말하여도 본래 소승은 없다. 부처님이 본래 이사를 말하여도 본래 이사(理事)는 없다. 이에 삼승(三乘) 12인연으로 나뉘어 교에 이르고 삼계(三界: 욕계, 색계, 무색계)에 법이 있는 바 새가 허공에 날아 자취가 없는 것과 같다. 화엄소(華嚴疏)에 있는 원돈(圓頓)이 위로 따로 일종(一宗)이 있는 것과 같다. 이는 평론(詮)을 잊고 뜻(旨)을 모음이다. 혹 종(宗)이 묻기를 어찌 평론을 잊고 어찌 뜻으로 모았는가 답) 오교(五

敎: 신라불교가 성할 때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 등 다섯 종파)로 평론을 잇고 오교의 뜻으로 모여도 선종이다.”

현각선사비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현각선사비가 있다. 고려 왕융(王融) 학사가 찬(撰)했으며 보국(輔國: 정이품무관벼슬) 장신원(張信元) 서(書)로서 경종(景宗)4년 기묘(己卯) 서기 979년 세웠다.”

나아가 진정천책(眞靜天頌)의 법당 증건과 선풍 천양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서술했다. “고려 원종(元宗)때(1260~1274) 종암(宗庵) 진정(眞靜)대선사²¹⁾가 새로 법당을 증건하여 선풍(禪風)을 천양(闡揚: 드러내 밝혀 두루 퍼지게 함)했다. 진정 선사는 충렬왕때 내원당(內願堂: 궁궐 안에서 불도를 닦던 집) 대선사가 되고 만년에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을 저술하였는데 선학(禪學)지침 발문과 같다 한다. 상세하면 대저 선(禪)은 부처님마음(佛心)이며 교(敎)는 부처님 말씀(佛語)이다. 마음 전하러 주장자 잡고 소리쳐 나를 짓는다. 일대(一大) 교(敎)를 감추고 달을 가리킴이 아닌 아리킴이 없는 연고로 이근(利根)이다. 선사는 아들이 사람을 무는 것은 둔근(鈍根)으로서 좋은 개(韓獹)가 죽귀(逐鬼: 흠을 무는 것)이다. 슬프다 사람을 문다는 것은 흠덩이를 무는 것 보다 과소하다. 대중을 물리쳐 두길을 이름은 다름이 상(相)을 이에 이르러 물리친다. 사람이 있어도 법에 관계치 않는다. 하루밤 자고 깨달아 이루기를 타인을 쫓아 비방하고 타인을 붙들어 잡지 않음은 하늘을 불사름이다. 자기를 쫓아 피곤하니 바람(正)이란 이를 이름이다. 이제 연곡 내원당에 늙은 종암옹(宗庵翁)선사가 주하니 선풍이 슬프다 장차 슬픔에 떨어져 사람들 아상(我相)이 높고古今(古今)을 채척(採摭: 뽑아서 가림)한다. 결의로서 대변하고 말과 더불어 대저 군신(君臣)을 숭상하므로써 나라 이치로 모든 것을 강론한다. 옳되 견성(見性)을 다분히 허락한즉 나누어 삼문목(三門目: 法空, 涅槃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해탈문, 곧 空門, 無相門, 無作門)이 된다. 선문보장(禪門寶藏)을 침재

21) 천책(天頌): 고려후기 『선문보장록』, 『법화해동전홍록』, 『호산록』 등을 저술한 승려. 성은 신씨(申氏). 자는 몽저(蒙且). 소년에 급제하여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나, 무상을 느끼고 강진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社)로 출가하여 천태종장(天台宗匠) 원묘국사(圓妙國師)의 제자가 되었다. 원묘국사는 천태종 수행법의 하나인 보현도량(普賢道場)을 창설하고 보현보살의 참회법을 수행하였는데, 그 법을 이어받은 뒤 백련사의 제4세가 되어 천태종풍을 떨쳤다. 만년에는 용혈사(龍穴寺)에 거주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용혈존숙(龍穴尊宿)’이라 불렀다. 시호는 진정국사(眞靜國師)이며, 저서로는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1권과 『법화해동전홍록(法華海東傳弘錄)』 1권, 『호산록(湖山錄)』 2권 등이 있다. 『선문보장록』은 선을 높이 내세우고 교를 낮추어보고 있어 천책의 저서가 아니라고 보는 설도 있다. 『해동전홍록』은 『법화경』의 영험설화를 수록한 것으로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고려 요원(了圓)이 지은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에 많이 인용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익, 1997년).

(鉞梓: 인쇄)하여 전하고자 지어 왔다 이익이 되는 즉 어찌 적게 보충할까 보나 그 눈이 있어도 날날 아득하고 달을 보고 가르켜도 잊어 버린 즉 이 한편의 글로 또한 눈 가운데 금가루(金屑)가 머무를 곳이 없도다. 원(元) 31년 갑오 서기 1354년 3월 일 몽암거사(夢庵居士) 봉익대부(奉翊大夫: 종이품 하문관)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 및 군기를 맡아 보던 벼슬), 국학(國學: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정3품) 문학학사 이곤(李垕) 발문(跋)”

선사와 더불어 원감국사가 수창(酬唱: 시가를 서로 주고받음)함

차운(次韻)은 연곡선사(진정선사)가 답함

“늙어 동습(童習: 아이버릇)하니 주장함이 어지럽네 / 오직 쓸쓸(蕭條)한 수석(水石)에 살아 기쁘이 / 둔한 기(機)는 매양 새로 나아가 웃고 / 많은 병과 다투는 고로 사람이 성글다. / 남쪽 처마와 흰달 가부좌 틀고 / 북쪽 마루 위로 맑은 바람 부누나 / 낮잠은 보배보다중한 것 / 내 스승 쇠유(衰儒: 쇠진하여 나약함)함을 기록 하네 / 때때로 자주 문안서를 드리리.”

다시 차운(次韻)은 연곡선사가 답함.

“두류산 형승은 그림으로 어려우리 / 홀로 임천(林泉)을 차지하여 좋은 곳에 살건만 / 짐은 고요하고 선미(禪味)는 길이 더디니 / 깊은 골짜기 숲멀리 세속인연 성글다 / 어찌 오직 취미가 홍망 밖으로 편할까 / 다시 겸하여 박혁(博奕: 장기와 바둑)을 울고 남네 / 욕됨이 두 번 좋은 참됨을 분리 분별치 못하니 / 천필 감회를 글로써 탄핵한다. / 평생 뉘굴(懶拙: 게으르고 졸렬함)함이 나갈지 말라 늙은이가 하물며 편안히 견디며 대중과 더불어 살아 / 장단이 이미 사람 쫓아 취탁(揣摩: 생각하여 헤아림)하는데 / 시비(是非)는 어찌 세상근심을 분별하여 성글소냐 / 청천(淸泉) 취석(翠石: 비취색) 그윽한데 숨어 살며 / 연한 죽순 풋나물 향기 들판 흥겹고 / 조만간 서로 따르니 두 늙은이 이루리 / 흰구름 깊은 곳 누워 글을 보노라[앞의 시는 복린(卜隣: 이웃을 점치는 것)의 말이 있어서이다]”

고려 때 연곡사 승과(僧科)가 설치되어 총림을 이루었다는 내용도 전한다. “고려 때 연곡사 승과(僧科) 사해(四海)를 설치 용상(龍象: 생전에 덕이 높고 뚜렷한 행적이 있는 스님)으로 모여들어 종(宗)을 이루었다. 이제 총림(叢林)을 이루어 옛 조사스님들 말이 전한다.”

고려 인종(仁宗)[1109년 10월 29일~1146년 4월 10일] 때 사람 한유한(韓惟漢)은 처음에는 벼슬을 하였으나 이자겸(李資謙)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는 것을 보고는 장차 화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가족을 데리고 악양현(岳陽縣)에 숨어 살았다. 조정에서 그의 재주를 아껴 사방으로 물색하여 찾았으나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세

상에 나오지 않았다. 훗날 지리산(智異山)의 연곡사(燕谷寺) 등지에서 그의 자취가 발견되었다고 한다.²²⁾

무의혜심(無衣惠諡, 1178~1234)은 “늦봄 연곡사에 놀러 가 당두(堂頭) 노승에게 주다(春晚遊燕谷寺贈堂頭老)”라는 시를 남겼다.²³⁾

春深古院寂無事 봄 깊은 옛 절은 적막해 일이 없고
風定閑花落滿階 바람잔데 한가한 꽃 섬돌 가득졌구나
堪愛暮天雲晴淡 저문 하늘 구름이 해맑음 어여빠라
亂山時有子規啼 어지런 산 이따금 두견이가 운다네.

이후 연곡사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기록이 전무하여 그간의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살필 수 없다. 다만 고려시대 연곡사는 「동사열전」에 고려 말의 승

22) 韓惟漢: 고려전기 지리산 화개동과 악양동에서 은거한 도교인이자 기인. 세인들은 그가 신선 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뒷날 지리산의 화엄사(華嚴寺)·연곡사(燕谷寺)·신응사(神凝寺)·쌍계사(雙溪寺) 등에서 흔적이 발견되었다. 최치원(崔致遠)의 도를 이어받아 세상에서 삼신산이라고 말하는 금강산·지리산·한라산에 신선을 따라 노닐었다고 한다. 지리산 화개동(華開洞)과 악양동(岳陽洞)은 그가 처음 피신하여 살던 곳이라 전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오호, 1998년)

23)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혜심(1178~1234), 13세기 / 『(국역) 무의자시집』, 1997, 을유문화사. 성은 최씨(崔氏). 자는 영을(永乙), 자호는 무의자(無衣子). 법명은 혜심(慧諡). 전라남도 나주 출신. 아버지는 완(琬)이며, 어머니는 배씨(裨氏)이다. 지눌의 뒤를 이어 수선사(修禪社)의 제2세 사주(社主)가 되어, 간화선(看話禪)을 강조하면서 수선사의 교세를 확장하였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출가하기를 원하였지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1201년(신종 4)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갔으나, 다음 해 어머니가 죽자, 당시 조계산(曹溪山)에서 수선사를 만들어 교화 활동을 하고 있던 지눌(知訥)에게 가서 어머니의 재(齋)를 올린 다음, 지눌의 제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힘써 정진하였으며, 지눌은 혜심의 재능을 아꼈다.

1210년 지눌이 입적(入寂)하자 혜심이 수선사로 돌아가 개당(開堂)하였다. 1212년 강종(康宗)이 수선사를 증축시키고 불법을 구하므로 그가 『심요(心要)』를 지어 올렸고, 당시 문하시중최우(崔瑀)는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켰다. 고종(高宗)은 왕위에 올라 혜심에게 선사(禪師)에 이어, 대선사를 제수하였으며, 1220년(고종 7)단속사(斷俗寺) 주지로 명하였다.

1234년 6월 26일에 문인들을 불러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한 뒤 입적하였다. 나이 56세, 법랍 32세였다.

문인에는 몽여(夢如)·진훈(眞訓)·각운(覺雲)·마곡 등이 있다. 저서로는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 『심요』 1권,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1권,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 1권,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2권, 『금강경찬(金剛經贊)』 1권, 『선문강요(禪門綱要)』 1권이 있다.

고종은 진각국사(眞覺國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부도(浮屠)의 이름을 원소지탑(圓照之塔)이라 사액(賜額)하였다. 부도는 광원암(廣遠庵) 북쪽에, 이규보(李奎報)가 찬한 「진각국사비(眞覺國師碑)」는 전라남도 강진군 월출산 월남사(月南寺)에 각각 세워졌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위석, 1997년)

려 진정국사 천책²⁴⁾이 연곡사에 주석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²⁵⁾ 고려 후기에는 목은 이색이 연곡사 주지인 印牛스님에게 서찰과 차를 받으면서 지은 시 정도가 남아 있다. ‘得燕谷住持印牛書送茶’라는 기록이 있어 연곡사 주지 인우가 글과 차를 보내왔다는 내용이 있다.²⁶⁾ 이로써 연곡사는 고려 말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得燕谷住持印牛書送茶 且托玉龍瑞龍田稅事 又得無說書 亦如之>

兩封書札出煙霞	두 봉의 서찰이 산림 속에서 나왔는데
二寺田疇傍海涯	두 절의 전답은 바닷가에 위치했다네
最是軍糧非有減	가장 군량이야 응당 줄일 게 아니지만
在於僧粥亦云加	승려의 양식 또한 더해야 한다 하누나
書生政爾猶干祿	서생들은 정히 녹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衲子無由只喫茶	승려들은 방도가 없어 차만 마시는구려
獨恨向人難掉舌	다만 한스러운 건 남에게 말하기 어려워
坐吟新律日將斜	홀로 앉아 석양까지 시만 읊고 있음일세

3. 조선전기 기록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 전기인 중종대(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 24) 천책(天頤): 고려후기에 활동한 승려. 성은 신씨(申氏). 자는 몽저(蒙且). 소년에 급제하여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나, 무상을 느끼고 강진 만덕산(萬德山)백련사(白蓮社)로 출가하여 천태종장(天台宗匠) 원묘국사(圓妙國師)의 제자가 되었다. 원묘국사는 천태종 수행법의 하나인 보현도량(普賢道場)을 창설하고 보현보살의 참회법을 수행하였는데, 그 법을 이어받은 뒤 백련사의 제4세가 되어 천태종풍을 떨쳤다. 만년에는 용혈사(龍穴寺)에 거주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용혈존속(龍穴尊宿)’이라 불렀다. 시호는 진정국사(眞靜國師)이며, 저서로는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1권과 『법화해동전홍록(法華海東傳弘錄)』 1권, 『호산록(湖山錄)』 2권 등이 있다. 『선문보장록』은 선을 높이 내세우고 교를 낮추어보고 있어 천책의 저서가 아니라고 보는 설도 있다. 『해동전홍록』은 『법화경』의 영험설화를 수록한 것으로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고려 요원(了圓)이 지은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에 많이 인용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익, 1997년)
- 25) “전남 구례 지리산 燕谷寺와 頭輪山 北庵에 주석했다.” 『眞靜國師傳』, 1894년(탈고), 1957년(간행), 『東師列傳』.
범해 撰·김윤세 譯, 1994, 『(완역본)동사열전 :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71쪽.
- 26) “연곡사(燕谷寺)의 주지(住持) 인우(印牛)가 서찰과 함께 보내온 차(茶)를 얻었는데, 그는 또 옥룡사(玉龍寺)와 서룡사(瑞龍寺)의 전세(田稅)에 관한 일을 부탁하였다.(得燕谷住持印牛書送茶 且托任玉龍瑞龍田稅事 又得無說書 赤如之)” (『牧隱集』, 『牧隱詩藁』 제26권 詩)

에는 “지리산에 있으며 고려시대 학사 王融²⁷⁾이 지은 玄覺禪師碑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⁸⁾ 이를 통해 16세기까지 ‘연곡사’와 ‘현각선사비’가 존재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고 ‘동승탑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동승탑비’의 글씨 있는 비석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입증되었다.

조선 전기인 1580년에 임란기(1592년)에 의병장을 지낸 청계(靑溪) 양대박(梁大樸)²⁹⁾은 연곡사의 ‘東庵’을 소재로 한 편의 제영인 <燕谷東庵 憶觀師>를 남겼다.³⁰⁾

“秋草禪庭訪古碑 東庵深處憶觀師 殘書剝落苔錢厚 舊迹荒涼石塔欹 蘿月照寒人去後 桂花飛盡客來時 無端解入三清路 獨倚青藜有所思”

“가을 풀이 무성한 어느 날 연곡사에 올라가 ‘東庵’의 옛 비석을 찾았다.”에서 ‘東庵’의 남은 글자가 벗겨 떨어지고 이끼가 가득한 古碑는 연곡사에 현존하고 있는 동승탑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는 동승탑은 道詵國師의 승탑이라고 전해지며 임란 때 왜병들이 동승탑 碑身을 파손시킨 후 귀부와 이수만 남고 身石이 없어져 버려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梁大樸이 이 작품에서 추모한 ‘觀師’도 그가 바로 ‘道詵國師’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곡사를 방문했을 때는 이 비석이 비신까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다만 글자가 떨어지고 이끼가 가득 끼어 옛 자취만 황량하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梁大樸은 “당쟁이 텅굴 사이로 비치는 달빛과 계수나무 꽃이 날리는 경치를 보면서 짐짓 자신이 신선이 산다

27) 왕융(생몰연대 미상), 광종 6년(955) 後周 世宗 등극 시 고려 사절로 후주에 다녀옴. 경종 4년(979) 연곡사 玄覺禪師碑文 및 경종 6년(981) 경남 산청 지곡사 眞觀禪師碑文 작성. 997년 平章事로서 사면령을 반포할 것을 청함.

28) 薰谷寺 在智異山有高麗學士王融所撰玄覺禪師碑(『新增東國輿地勝覽』 卷39, 南原都護府·(新增)求禮縣 佛宇條 : 1530년 / 『東國輿地勝覽』 : 1481년)

29) 양대박(梁大樸)[1543년(중종 38)~1592년(선조 25)]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사진(士眞), 호는 송암(松巖)·죽암(竹巖)·하곡(荷谷)·청계도인(靑溪道人).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학관(學官)으로서 아들 양경우(梁敬遇)와 가동(家僮) 50명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고경명(高敬命)이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하고 유학(幼學) 유평로(柳彭老)와 함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다. 같은 달 7일 군대를 정비하고, 이튿날 출정에 나서자 전주로 가서 의병 2,000명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과로로 발병하여 진산(珍山)의 진중에서 죽었다. 1786년(정조 10) 10월 전라도 진사 이진희(李鎭熙) 등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병조참의로 추증되었으며, 1796년 9월 보국숭록대부 판중추부사 겸 병조판서(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兵曹判書)로 개증(改贈)되었다. 저서로는 『청계집(靑溪集)』이 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인국, 1997년)

30) 梁大樸, <燕谷東庵 憶觀師>, 『靑溪集』 卷1, 文集叢刊 53, 527쪽.

고 하는 三清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듯하다 하고 지팡이에 기댄 채 ‘觀師’를 懷憶하였다.” 梁大樸은 임란이 일어나자 곧 아들 染慶遇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高敬命과 합세했는데 얼마 후에 과로로 진중에서 세상을 떴으니 이 작품은 임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양대박이 남긴 「頭流山紀行錄」에는 “경진년(1580년, 선조 13년) 가을, 고담(孤潭) 과 [원문 결락] 연곡사(燕谷寺)로부터 [원문 결락] 봄에 꽃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질 때마다 내 정신은 두류산을 왕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산의 웅장함이 바다를 삼킬 듯하고 천지간에 우뚝하여 못 신선들과 고승들이 모여 살기 때문일 것이다.”³¹⁾라는 기록만 전한다.

조선 전기인 16세기 후반에 조선의 역사상 8명의 문장가(文章家) 중 하나인 고담(孤潭) 이순인(李純仁: 1533(중종 28)~1592(선조 25))³²⁾도 어느 날 연곡사 종소리를 들으며 잠을 못 이루고 누각에 오른 뒤에 <燕谷寺>라는 두 편의 시를 남겼다.

<燕谷寺>³³⁾

水杵鳴秋壑	물방아 소리 가을 계곡에 울리고
山鍾出曙林	산 종소리 새벽 숲에서 나오네
幽人更無寐	유인은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默坐見天心	말없이 앉아 천심 ³⁴⁾ 을 보고 있구나

<燕谷寺>³⁵⁾

歸卧田園夢亦虛 전원²에 돌아가 누울 꿈을 꾸는데 또한 헛되니

[illegible]

강정화, 2011, 『청계(靑溪) 양대박(梁大樸)의 지리산 읽기, 『頭流山紀行錄』』, 동방한문학회.
李陸 [외] 지음 : 최석기 [외] 옮김, 2007,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32) 이순인(李純仁)[1533년(중종 28)~1592년(선조 25)], 1891年刊, 고담일고(孤潭逸稿),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자는 春卿, 伯生, 호는 孤潭, 본관 全義, 봉호 全陵君, 曹植과 李滉의 門人, 평생 여러 명승 사찰을 유람하였고 특히 燕谷寺, 中興寺, 奉恩寺, 金山寺, 檜巖寺 등을 주요 讀書處로 삼았던 관계로 이곳들을 읊은 시가 다수 남아 있다.

33) 孤潭逸稿卷之一 / 詩○五言絕句 二十六首

34) 천심(天心) : 주역 복괘(復卦)에 천지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설에 의하여, 皆以謂至靜能見天地之心(개이위지정능견천지지심)다 이르기를 ‘정(靜)에 이르는 것이므로 능히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함. <주역원문>(彖曰 復亨 剛反 動而以順行 是以出入无疾朋來无咎 反復其道七日來復 天行也 利有攸往 剛長也 復 其見天地之心乎)

35) 孤潭逸稿卷之一 / 詩○七言絕句 百三十九首.

白雲僧札近來疎 백운승³⁶⁾ 편지는 근래에 오지 않아서
 入山還笑偷閒計 산에 들어가 투한³⁷⁾ 계획하니 도리어 우스워라
 又得鄉人借寇書 또 향인들 차구의 편지를 얻었네

조선 전기인 16세기 중반에 이소한[李昭漢, 1598년~1645년]이 남긴 연곡사에서 태능노사를 만난 소회를 시로 썼다.

<太能老師聞余入山 自燕谷寺來會 與性師談玄 聽而志喜>³⁸⁾
 鬱鬱三神洞 冷冷萬瀑流 高僧相對坐 道氣此中浮
 晚笛和風閑 殘花帶雨留 孤雲舊遊跡 千載屬遨頭
 落景依山盡 清湍漱石流 煙霞隨處在 天地此身浮
 數日攀躋穩 孤雲物色留 清秋更乘興 獨上最高頭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중관해안(中觀海眼) 선사(仙師)의 시와 부용영관(芙蓉靈觀)大師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했다.

- 36) 백운승(白雲僧) : 떠돌아다니며 탁발하며 공부하는 스님을 白雲僧, 산중에서 수도하는 스님을 靑山僧이라고 비유하는 의미.
- 37) 투한(偷閒) : 한가한 시간을 훔친다는 뜻으로, 바쁜 가운데 틈을 내거나 틈을 내서 일을 함을 이르는 말.
- 38) 晉陽錄 玄洲集卷之二(1674年刊) / 이소한[李昭漢, 1598년~1645년]: 조선후기 진주목사, 예조참의,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도장(道章), 호는 현주(玄洲). 서울 출신. 부호군 이순장(李順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령 이계(李啓)이다. 아버지는 좌의정 이정구(李廷龜)이며, 어머니는 권극지(權克智)의 딸이다. 타고난 자질이 준수하고 총명해 신동으로 불렸다 한다. 1612년(광해군 13)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1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나가 벼슬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과 함께 승문원주서를 거쳐 홍문관정자에 승진되면서부터 풍부한 학식이 정부 관료들 간에 널리 인정되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공주로 인조를 호종했으며, 환도한 뒤에는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절용애민(節用愛民)의 정치를 펼 것을 진언하였다. 그 뒤 다시 수찬·정언·교리 등의 문관 요직에 있으면서 상소나 혹은 왕을 모신 자리에서 정사와 왕실의 잘못을 지적해 때로는 왕의 비위를 거슬리기도 하였다. 1626년 수찬으로서 중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왕을 모신 자리에서 내수사를 파해 국가 공용에 보탬이 되도록 주청하였다. 1632년 신진 유신들과 함께 인조의 사친(私親)인 정원군(定遠君)의 왕호추숭(王號追崇)을 반대했다가 파직당하기도 하였다. 그 뒤 다시 등용되어 충원현감·진주목사·예조참의 등의 내외 관직을 역임하였다. 1643년 왕세자가 청나라 심양(瀋陽)에 볼모로 갈 때 세자우부빈객 동지중추부사로 호종해 보좌했으며, 이듬해 귀국해 형조참판으로 비변사당상을 겸임하였다. 아버지 이정구, 형 이명한(李明漢)과 함께 3소(三蘇)라 일컬어졌다. 뒤에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시문에 능하고 글씨에 조예가 깊었으며, 20여 년간 관계에서 활동하면서 『동사록(東槎錄)』·『진양록(晉陽錄)』·『심관록(審館錄)』·『방축록(放逐錄)』 등의 시를 남겼다. 시문집으로는 『현주집』 7권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용국, 1997년)

연각사회에서 중관당(中觀堂) 해안선사(海眼禪師)³⁹⁾ 글(題)

“옛날 계림에 선원지(禪苑地)가 있었지 / 때에 율석(律席)에서 뜻으로 용거(龍居)를 일컬었네 / 천년 나그네 풍운에 의지하여 휘파람 불며 / 창해(滄海) 늙은 잉어(鯉魚) 놀라 솟구쳤네.”

“조선 중종(中宗)때 선종(禪宗)으로 제6조 부용(芙蓉) 영관대사(靈觀大師)⁴⁰⁾가 개화(開化: 사람들을 깨우치게 함)시켜 연곡사에서 아래로 2대를 냈다. 법안(法眼), 청허(淸虛), 부휴(浮休)”

“상국(相國: 영의정) 이경석(李景奭: 1595~1671 조선조 인조 때 문신 척화

39) 해안[海眼, 1567년~?]: 조선시대 『중관대사유고』, 『죽미기』, 『화엄사사적』 등을 저술한 승려이자 승병장. 성은 오씨(吳氏). 호는 중관(中觀). 전라남도 무안(務安) 출신.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이라 불렸다. 처음에 처영(處英)을 은사로 하여 득도하였으나 뒤에 휴정(休靜)의 문하에서 참학(參學)하여 심인(心印)을 받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해에 영남지방에서 의승을 일으켰고, 전공을 세워 총섭(總攝)이 되었다. 전란 후 지리산 화엄사에 있으면서 대화엄종주(大華嚴宗主)로서 법화(法化)를 폈다. 만년에는 지리산 귀정사(歸正寺) 소은암(小隱庵)의 옛터에 대은암(大隱庵)을 중창하고 그 곳에서 참선수도에 정진하였다. 자세한 행장은 전하여지지 않으나 1636년(인조 14)에 화엄사의 사적을 쓴 것으로 보아 70세 이후에 그 곳에서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을 이은 제자로 청간(淸侃)·정환(正還)·설매(雪梅) 등이 있다. 저서로는 『중관대사유고(中觀大師遺稿)』 1책, 『죽미기(竹迷記)』 1책, 『화엄사사적(華嚴寺事蹟)』 1책, 『금산사사적(金山寺事蹟)』 1책 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위석, 1997년)

40) 영관(靈觀): 1485년(성종 16)~1572년(선조 1), 조선전기 신충에게서 불경을 배우고 위봉에게서 참선을 배운 승려. 선승(禪僧). 경상남도 사천 출신. 호는 부용(芙蓉) 또는 은암(隱庵). 연선도인(蓮船道人)이라고도 한다. 8세 때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면서 어람을 들고 다니게 하였더니, 살아 있는 물고기를 모두 놓아 주었다. 1498년(연산군 4) 물래 출가하여 덕이산(德異山)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선자(禪者) 밑에서 3년 만에 그 법을 배운 뒤 삭발하고 중이 되었다. 1501년 신충(信聰)에게서 불경을 배우고 위봉(威鳳)에게서 참선을 배웠다. 그 뒤 구천동에 들어가서 초암을 짓고 9년 동안 머물렀는데, 항상 앉아서 눕지 않았고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으며, 바깥출입을 일체하지 않았다. 1509년(중종 4) 용문산(龍門山) 조우(祖愚)의 밑에서 참선하면서 『노자』와 『장자』를 통달하였고, 1514년 청평산(淸平山) 학매선자(學梅禪子)를 만나 현묘한 뜻을 문답하였다. 1519년 금강산세존암(世尊庵)에서 조운(祖雲)과 함께 2년을 안거한 뒤 내원암(內院庵)에 들어가 율시 한 수를 짓고, 붓과 벼루는 불에 태운 뒤 묵언정진하며 9년을 지냈다. 1530년 가을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30년 만에 고향을 찾아 아버지와 옛 주인을 만난 뒤 다시 지리산의 지엄(智嚴)을 찾아갔다. 지엄의 가르침으로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마음속의 의문을 풀었다. 3년 동안 지엄을 모시고 수행한 뒤 황룡산(黃龍山)·팔공산(八公山)·대승동(大乘洞)·의신동(義信洞)·연곡동(燕谷洞) 등에서 40여 년 동안 후학을 지도하다가 나이 87세, 법랍 72세로 입적하였다. 제자 법융(法融)·영응(靈應)·대선(大禪) 등 8인이 영골(靈骨)을 거두어서 연곡사(燕谷寺) 서쪽 기슭에 부도(浮屠)를 세웠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휴정(休靜)이 있다. 휴정이 쓴 행록을 통하여 단편적으로나마 그의 격외선(格外禪)의 도리와 불법관(佛法觀)을 살필 수 있다. 의리를 밝게 분석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고, 칠요(七曜)·구장(九章)·천문(天文)·의술(醫術)에 통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유가와 도가에도 통달하였다. 항상 조사(祖師)의 공안(公案)을 참구(參究)하게 하여 활연히 깨닫는 것으로써 입문하게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국, 1997년)

신으로 벼슬은 영의정에 이름 문장과 글씨로 뛰어남)이 벽암선사(碧巖禪師) 비를 찬(撰)해 이루기를 대사가 천축의 교를 이어 부용 영관대사가 임제(臨濟)에 접하였으며 부휴, 청허, 휴정이 같은 일로 유서(遺緒=遺業)하였다. 영관이 휴정에게 전하고 벽암, 휴정이 송운(松雲)에게 전했다.”

“부용당 행적: 선사는 영남 진주인이다. 휘는 영관이며 호는 은암선사(隱庵禪者)이다. 초 하루날 연꽃 배를 타고 사람이 이루어졌다.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의지했으나 생각은 서방정도에 있다 하는 까닭에 부용당이라 이름했다. 선사는 성화 을사(乙巳) 성종 16년 서기 1485년 7월초 7일생이다.(중략) 13세에 곧 바로 지리산 대덕을 찾아 고행했다. 참선을 3년 동안 하고 그 법으로써 머리를 깎았다.(중략) 깊숙이 미륵봉 내원암(內院庵)에 들어가 일율(一律)을 읽고 붓을 들어 큰 글씨로 그 문(門)에 쓰기를, 공비(空費: 쓸데없는 비용)로 한가로히 적은 생각으로 숲을 돌며 구렛나루가 쇠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비야(毘耶: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마경을 전도한 곳)는 옛날 같다.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갈(摩竭: 세존이 대도를 이룸) 당년 소리 음같이 건너 꺾이고⁴¹⁾ 능히⁴²⁾ 분별을 막아 뜻이 어리석다. 반드시 시비를 제어하는 마음인 고로 장차 망녕되어 계(計)함이 산 밖으로 난다. 임종일 고동(機)을 잊고 벽잠(壁岑: 푸른 메뚜리)을 대하여 붓을 사르며 벼루를 막아 침묵으로 앉아서 9년을 보냈다. 유객(遊客: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사람)이 문에 이른즉 이 시(詩)를 가르켜⁴³⁾ 자기라 했다.(중략) 선사는 몸소(自) 일답(一踏)으로 벽송지문(碧松之門: 벽송대사를 가르킴)을 쫓았으며⁴⁴⁾ 후 황룡산(黃龍山: 함경남도 안변군과 강원도 풍천군 사이에 있는 절)에도 살고 후, 팔공산(八公山: 대구)에도 살고 후 대승동(大乘洞)에도 주(住)하고 후 의신동(義神洞)에도 주하고 후 연곡동(燕谷洞)에도 주하여 꿈길속에서 깨치치 못하고 41년을 지냈다. 룡경(隆慶) 신미(辛未) 선조 4년 서기 1571년 4월 14일 입적하였으니 세수 87세 법랍(法臘) 72세였다. 시자(侍者) 법융(法融), 운응(雲應), 대선(大選), 정원(淨源), 신용(信翁), 선원(禪源), 진기(真機), 도의(道義) 무리들이 영골(靈骨)을 거두어 부도를 세웠다. 영곡사⁴⁵⁾ 서쪽 줄기에 그 영대(靈臺) 신우(神宇)를 지어 서러워했다. 가히 우러러도 가히 지해법원(智海法源)을 보지 못하며 가히 지나쳐도⁴⁶⁾ 가히 정이 박락(靜以樸懶: 얕드려 뒤척이는 고요)과⁴⁷⁾ 재(材)와 추애(湫隘: 땅이 낮고 좁

41) 꺾이고

42) 능히

43) 가르켜

44) 쫓았으며

45) 연곡사

46) 지나쳐도

음)를 칙향치 못한다. 기(記)로써 선사의 넓은 덕을 보는 것이 참으로 참연(慚然: 부끄러움)할 뿐이다. 후학들은 선사의 법어(法語)로써 눈뜨고 일소(一笑: 깨우침)하는 즉, 하나로서 스승을 알면 하나로서 은혜를 보답해 스승을 친견하는 것이다. 만역(萬曆) 5년 선조 10년, 서기 1577년 정축(丁丑) 9월 일 봉악산인(鳳岳山人) 휴정(休靜: 1520~1604 청허서산대사 임진왜란때 왕의 특명으로 8도 도총섭이 되어 73세 노령으로 승병 1천5백을 규합 총수가 되어 서울 수복에 공을 세우고 국일도대선사 선교도총섭 부종수교보 등계존자를 받았다. 1594년 제자 유정에게 병사를 맡기고 묘향산에 있는 원적암에서 여생을 마쳤다)이 삼가 쓴다.”

4. 소요태능·동파정심의 중창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 1598년에 구례지역 가노(家奴)민초들과 구례 간전리 출신 남전(藍田) 왕득인(王得仁, 1556(명종 11)~1597(선조 30))이 의병을 일으켜 석주관을 사수하다 전사한 의사 6인과 현감 이원춘이 석주관 전투에서 살아남아 남원성에서 순절해 1인을 구례 출신 의사(義士) 7명의 남원 의병과 합세해 의병을 이끌고 하동과 구례 사이의 통로 가운데 요새지인 석주관(石柱關)에서 피아골로 유인하였다. 이곳에서 의병들이 매복해 바위 등으로 왜군의 600여 명의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보급로를 차단하여 큰 타격을 입혔으나 왜군과의 교전 중에 전사하는 등 많은 희생 하면서 그들의 손아귀에 구례가 넘어가면서 연곡사도 소실되었다. 이때 연곡사 화엄사·천은사의 스님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고 희생당했으며 의병들의 포함 “혈류성천[血流成川, 죽은 자들의 피가 골짜기를 피로 물들고] 위벽위적[爲碧爲赤, 피가 흘러 강이 되니 푸른 물이 붉게 물들었다]”이라는 혈천(血川)이 되어 이곳을 피 냄새가 골짜기를 진동한다는 뜻으로 피내골 혹은 피아골이라고 불리고 있다.⁴⁸⁾

47) 정이박라(靜以棲懶)와

48) 피아골은 전남 구례군 토지면(土旨面) 내동리(內東里) 소재 연곡사에서 반야봉(般若峰: 1,751m)에 이르는 연곡천 계곡을 말한다. 길이 약 20km. 지리산 제2봉인 반야봉의 중턱에서 발원한 맑고 풍부한 물이 임결령·불무장 등의 밀림지대를 누비며 피아골 삼거리·연곡사 등을 지나 섬진강으로 빠진다. 폭포·담소(潭沼)·심연이 계속되는 계곡미가 뛰어나다. 특히 이곳의 단풍은 지리산 10경(景)의 하나로 손꼽힌다. 옛날 이 일대에 피밭[稷田]이 많아서 ‘피밭골’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이것이 변해 피아골이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한말(韓末) 격동기·여순반란 사건·6·25전쟁 등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10월 말에는 전국에서 모이는 등산객들이 피아골 단풍제를 지내는데 이 산신제는 1977년부터의 연례행사이다.(두산백과)

선조 대의 왜란은 우리나라 사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는데 연곡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1598년(선조 31) 4월 10일 倭賊 사백여명이 하동·악양을 거쳐 지리산의 雙溪·七佛·鰲谷寺 등 사찰에까지 들어와 살육을 자행하고 불을 지르는 등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였다.⁴⁹⁾

「智異山 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정유재란 당시의 참화에 관해 서술했다.

“선조 26년 계사(癸巳) 서기 1593년 절이 불탔다.⁵⁰⁾ 전래된 유물들이 모조리 없어졌으며 향(鄕)인들 어찌 있을까(烏有)”

조선 후기 고승 청매인오(靑梅印悟)는 휴정(休靜)의 제자로 말년인 17세기 초에 지리산 연곡사(鰲谷寺)에 주석(駐錫)하면서 임진왜란 때 구국과 불교중흥에 심혈을 기울였다.⁵¹⁾ 말년에 부안의 변산 아차봉 기슭에 월명암(月明庵)을 짓고 수도하다가 지리산 연곡사로 들어갔다. 1617년(광해군 9)에는 왕명을 받아 정심(正心)·지엄(智嚴)·영관(靈觀)·휴정·선수(善修) 등 5대 종사의 영정을 그려 조사당에 모시고 제문을 지어 봉사하였다.

서쪽으로 一里쯤 올라가면 ‘西窟庵’이 있는데 여기서 조선의 명승 西山大師가 수도하였다 한다.⁵²⁾ 그 시기는 정유재란 이후인 17세기 초로 추정된다.

노산 이은상의 1938년 <지리산탐험기> <19. 燕谷洞의 매미소리>에 의하면 “승려들 사이에 서로 전하되 특히 청허서산대사의 낙발(落髮)이 이 절에서 된 듯

49) 「亂中雜錄」 3(『退耕堂全書』 2, 韓國寺刹全書(上), 再引用)

50) 「亂中雜錄」에 의해 알려진 연곡사의 소실은 1598년(선조 31) 4월 10일이다.

51) 인오(印悟)[1548년(명종 3)~1623년(인조 1)]: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이 되어 승병을 거느리고 왜적과 싸운 승려(승병장). 자는 묵계(默契), 호는 청매(靑梅). 자세한 생애는 전하지 않으나 지리산 연곡사(鰲谷寺)에 있으면서 임진왜란 때 구국과 불교중흥에 심혈을 기울였던 고승으로서 뛰어난 문장가이며 휴정(休靜) 문하에 두각을 드러냈던 선사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유정(惟政)과 함께 휴정의 문하에서 선지(禪旨)를 전해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31세에 묘향산에서 휴정과 함께 수도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휴정의 뜻에 따라 의승장(義僧將)이 되어 승병을 거느리고 3년 동안 왜적과 싸워 크게 공을 세웠다. 그 뒤 전국을 행각수도(行脚修道)하였으며 말년에 부안의 변산 아차봉 기슭에 월명암(月明庵)을 짓고 수도하다가 지리산 연곡사로 들어갔다. 1617년(광해군 9)에는 왕명을 받아 정심(正心)·지엄(智嚴)·영관(靈觀)·휴정·선수(善修) 등 5대 종사의 영정을 그려 조사당에 모시고 제문을 지어 봉사하였다. 76세로 입적하자 제자들이 천왕봉(天王峯) 밑에 영당(影堂)을 짓고 영정을 봉안하였다. 그는 청매파(靑梅派)를 개설하여 조선 중기 이후의 선종(禪宗)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법을 이은 제자로는 쌍운(雙運)이 있다. 저서로는 『청매집』 2권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지관, 1997년)

52) 求禮郡史編纂委員會[編], 1987, 『求禮郡史』, 구례군사편찬위원회·전라남도, 717쪽.

하다 하여 그로써 이 절의 큰 자량을 삼는다고 하지만, 서산이 십오세에 지리산으로 들어와 승인장로의 권유를 받고 영관선사의 가르침을 입어 출가하게 된 것은 사실이로되, 그가 “홀문사우제창외(忽聞社宇啼窓外), 만안춘산진고향(滿眼春山盡故鄉)”(소쩍새 소리 듣고 창밖을 보니, 봄빛 가득한 저 동산이 내 고향 같구나)의 구(句)를 음(吟)하고서 은도(銀刀)를 쥐고 자단청발(自斷靑髮)한 곳이 꼭 여기라고 할 증고(證考)는 없다. 뿐만 아니라 <불조원류(佛祖源流)>에 “입지리산의승인대사(入智異山依崇仁大師落髮於圓通庵), 즉시의신남록(卽是義信南麓)”이라 한 것이 있음을 보아, 서산대사를 연곡사에 관계하여 말함은 오히려 부당한 듯하다. 다만 그가 연곡동으로 다녔다는 기록은 있으며(淸虛集), 이 절에도 머물렀던 일은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에 대한 추모는 이 산중 다른 곳에 가서 말할 데가 있는 만큼, 그를 연곡에서 내세울 것은 없다고 본다. 라며 탐험 당시의 승려들의 전언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놓았다.

정유재란 때 왜병에 의해 불타버린 연곡사를 1627년(인조 5)에 逍遙大師 太能(1562~1649)이 중창하였다.⁵³⁾ 연곡사에 루(樓)가 있어 수많은 당대의 인물들이 그 누각에 오르고 시를 남겼다. 1872년 지방도(구례현, 규장각)에 화엄사 향 우측 하단에 燕谷寺의 사명과 누각 등 목조기와건물 각 1동을 채색하였다.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서산대사 휴정(1520~1604)의 제자로 사명유정(四溟惟政), 편양언기(鞭羊彦機), 정관일선(靜觀一禪) 등과 함께 4대 문파를 형성하여 조선 후기 불교계를 이끈 인물이다. 그의 시문을 엮은 『逍遙堂集』에 행장이 전한다. 또한 『逍遙堂集』을 통해 연곡사에 향각(香閣)이 존재했던 사실과 연기조사의 창건, 소요대사의 중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지리산의 신흥사와 연곡사(燕谷寺)를 중건했는데 그에 감화된 사람들의 도움으로 며칠 만에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소요 태능은 연곡사를 1627년에 중창하고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집인 『逍遙堂集』에 연곡사와 관련된 시문으로 <題燕谷寺香閣>과 <題燕谷寺壁上>이 있어 저간의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題燕谷寺香閣>

一竿脩竹建精藍 한 줄기 길다란 대나무로 정갈한 가람을 세우니
瑞氣祥雲擁石龕 상서로운 기운과 구름이 둘 감실을 둘러싸네.

53) 鄭秉憲, 1924, 「附 智異山 燕谷寺 事蹟記」,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太能, <題燕谷寺壁上>, 『逍遙堂集』, 『韓國佛教全書』 8~190쪽.

54) 太能, <題燕谷寺壁上>, 『逍遙堂集』, 『韓國佛教全書』 8~190쪽.

香火金壇修敬盡 불단에 향불 피워 공경함을 다하여
 身心寂滅豈萌貪 몸과 마음이 고요하니 어찌 탐욕의 싹이 트리오?
 百千經卷如標指 백천의 경전은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因指當觀月在天 손가락으로 인하여 하늘에 달이 있음을 보네.
 月落忘指無一事 달 지고 손가락도 잊으면 아무 일 없나니
 飢來喫飯困來眠 배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잠잘 뿐이네.
 水上泥牛耕月色 물 위에 진흙소는 달빛 밭을 갈아엎고
 雲中木馬掣風光 구름 속 나무말은 경치를 이끄네.
 威音古調虛空骨 위음의 옛 곡조는 허공 속의 뼈다귀요
 孤鶴一聲天外長 외로운 학의 일성 하늘 밖으로 이어지네.

그의 시 <題燕谷寺壁上>에서 연기조사(燕起祖師)가 초창했다고 읊고 있어 연곡사 연기조사 초창설을 최초로 주장하였다.⁵⁵⁾

燕起祖師初創去 연기조사가 처음 이 절 짓고 간 뒤
 逍遙病老又營來 병든 소요 늙은이 또 경영해 왔다
 悵恨昔年人事盡 슬프다. 옛날의 그 사람은 다 갔는데
 案山依舊翠眉開 안산은 예와 같이 파란 눈썹 열었네

태능(太能)이 어느 누각에서 읊었는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 한 수가 전한다.

江城何處起秋風 강과 성 어느 곳에서 가을 바람 이는가
 螢火如流點暮空 저문 허공엔 반딧불 물 흐르듯 하네.
 政好乘涼吟夜月 서늘한 기운에 밤 달 읊기 참 좋아라
 浩然詩思滿樓中 호연히 시사(詩思)가 누각에 가득하네.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소요 태능선사에 대한 행적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연곡사 벽의 소요선사(逍遙禪師)⁵⁶⁾ 글(題): 연기조사가 처음 세우고 갔다.

55) 태능, <題燕谷寺壁上>, 「逍遙堂集」, 『韓國佛教全書』 8~190쪽.
 『한글대장경』 164, 1978, 동국역경원, 65쪽.

56) 태능(太能) 성은 오씨(吳氏). 호는 소요(逍遙). 법명은 태능(太能). 전라남도 담양 출신. 서산대사휴정(休靜)의 전법제자(傳法弟子)이자 소요파(逍遙派)의 개조(開祖)이다. 13세에 백양산(白羊

소요병노(逍遙病老) 또한 초창(惆悵: 원망하는 모양)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지 난해에 인사(人事)가 다해 산언덕은 옛을 의지하여 취미(翠微: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온 곳. 8부)에서 연다.” “인조대왕 27년 기축 서기 1649년 11월 21일 소요선사는 연곡사에서 입적했다.” “조선국 시호 국일도(國一都)대선사 혜감(惠鑑)대사 소요당부도 비명(碑銘) 병서(并書): 홍문관(弘文館: 조선조 삼사의 하나 경서, 사적, 문서를 관리하고 왕을 자문하는 관청), 대제학(大提學: 조선조 홍문관 정2품벼슬) 백헌(白軒) 이경석 [李景奭: 백헌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 찬(撰)함.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 서쪽 총령(葱嶺: 중국 신장성天山南路의 서남편의 山脈)에서 돌아와 척리(隻履: 외딴신)로 머물렀으니 령(靈)이 동쪽 약산(藥山)을 거닐다가 자취를 남겨 일성(一聲)을 전한 것이다. 묘적(妙蹟)은 사리(舍利)를 당하여 곧 받들어 가히 부도로 관계하여 숭상한다. 선사의 속성은 오씨(吳氏)이며 법휘(法諱)는 태능(太能)으로 호남 담양 사람이다. 가정(嘉靖)41년 명종(明宗)17년 서기 1562년 임술(壬戌)에 가을이 한창인 때(高秋) 9월에 태어났다. 아양(阿孃) 꿈에 대승(大乘) 적은 글자가 그 서로 빼어났는데 가늘게 다르고 병부가 같았다. 진사(眞師)에 의지하여 백양사에서 13세에 머리깎고⁵⁷⁾ 승복을 입었다. 현지(玄旨: 오묘한 뜻)는 황벽역조(黃蘗億兆: 중국 임제종대통)를 알았다. 이름은 임성(任性: 성품에 맞도록)인해 소요

山)의 경치에 감화받아 진대사(眞大師)로부터 계(戒)를 받고 출가하였다. 그 후 속리산과 해인사 등지에서 부휴(浮休)에게 경률(經律)을 익혔는데 부휴의 수백 명의 제자들 중 태능·충휘(沖徽)·응상(應祥)이 법문(法門)의 삼걸(三傑)이라 불렸다. 그는 묘향산으로 휴정(休靜)을 찾아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화두를 물었다. 문답한 뒤 휴정은 의발(衣鉢)을 전하고 3년 동안 지도한 뒤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하게 하였다. 그 뒤 휴정에게 다시 탁마한 후 크게 깨달았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서성(西城)을 보완하였으며, 지리산의 신흥사(神興寺)와 연곡사(燕谷寺)를 중건하였다. 1649년 11월 21일 법문과 임종계를 설하고 나이 87세이고 법랍 75세로 입적하였다. 그는 선(禪)과 교(敎)를 하나의 근원에서 파생한 두 가지 흐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사상과 경향은 서산대사와 일맥상통한다. 『소요당집서(逍遙堂集序)』에서는 서산대사의 뛰어난 제자들 중에 오직 그만이 선지(禪旨)를 통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본래청정(本來淸淨)하고 자재하며 완전한 일물(一物)인 우리의 자성(自性)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참된 주인공으로서 작용하는데 이 참주인공을 자각한 사람만이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선(禪) 사상이 실참실수(實參實修)를 통한 체함에 있음을 실감하고 상징적인 비유를 통하여 개념적인 지식을 초월하여 바로 그 실상을 실감하도록 하는 선종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깨우치려 하였으며 철두철미하게 불교를 주체적으로 깨닫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뛰어난 제자로는 현변(懸辯)·계우(繼愚)·경열(敬悅)·학눌(學訥)·처우(處愚)·천해(天海)·극린(克璘)·광해(廣海)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소요파(逍遙派)로 불리는 수 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저서로는 『소요당집』 1권이 있다. 사리를 연곡사·금산사(金山寺)·보개산(寶蓋山) 세 곳에 나누어 모시고 부도(浮屠)를 건립하였다. 그를 흠모한 효종은 1652년(효종 3) 혜감선사(慧鑑禪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이경석(李景奭)을 시켜 비명(碑銘)을 지어 금산사에 세우게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위석, 1997년)

(逍遙)인데 흐린 자취 따라 인연하여 바야흐로 남국을 참배하여 부휴(浮休)대사에게서 대장경(大藏經)을 받았다. 두 번이나 서산(西山)대사를 방문 본원(本源)을 깨달았다. 청정(淸淨)하게 금강(金剛)으로 살아 수재(數載)의 옥계(玉僞: 구슬같은 계승)를 연설해 일생을 고봉(高峰)으로 반연(攀緣: 타인과 맺어진 인연)을 끊고 밝은 거울처럼 높이 들어 신계 비추었다. 절이 흥하도록 나무로 새로히⁵⁸⁾ 집 짓는 것을 금하고 복되게 연곡총림(燕谷叢林)을 만들었다. 옛을 닦아 관(觀)한 수승이 미후지산(彌猴 큰원숭이 之山)으로 앉은 경지였다. 현지(玄旨)에 응해 용상지천(龍象之川: 생전에 덕이 높고 뚜렷한 행적이 나와 같다는 뜻)이다. 분란(奔爛: 분주히 뻗적뻗적 빛나는 모양)하여 문(門)이 가득 차고 무성하였다. 방에 들면 말씀이 영화로워 일직 저 뜻 다르게 주석하여 같이 살았다. 일을 판단함이 크고 재물을 이루는 큰 공으로서 불애한다. 깊고 깊은 각원(覺苑) 보배가 뜬 때가 나루가에 혼미해 무성한 진진(眞眞)을 열어 탁연히 석장(錫杖)으로서 말씀 드리우고 완연(宛然)히 그 일상에서 잠간사이(倏爾)⁵⁹⁾ 죽었다. 세수 92세, 선랍(禪臘) 73세, 룡복(龍腹: 난간향기)이 향기로 왔다. 처마에 응결된 빗남이 상서롭게 빛났다 납의(納衣)를 안아 분집(盆集: 떼지어모임)한 사람들이 천 명에 달했다. 법우(法友)가 널리 삼천지세계(三千之世界)로 적셨으며 신주(新珠)는 축복스럽게 한가로히 뛰어 빛나서 쌍(雙)선골(仙骨)을 이루었다. 허공으로 날아 올라 손가락으로 가르쳐 고표(高標)에서 하나 얻어 새대(璽臺) 정토(淨土) 안탑(雁塔)에 모셨다. 나누어 보배를 금산(金山)에 감추고 곧 계원(雞園)으로서 각자 세우니 그 제자등이 3년 동안 미치도록 아름으로 남았다. 슬프다 깊고 먼(愈深) 천리로 버리고 오니 줄어(拙語)를 구해 정성은 간절하건만 이같이 듣고 크게 웃으리 계(僞)를 일컬어 길이 새긴다 본래 무(無)가 없음이니 / 무가 어찌 있음이 있으리오 / 멸(滅)이 있으면 / 멸이 됨이 없고 / 우연(偶然)이 그러하나 / 목숨 아니면 / 전의 목숨 일진대 / 후의 목숨은 누가 보태는가. 그가 오래도록 존재하였으므로 그 선종(善宗)을 얻었다. 침굉(枕肱: 팔을 베게 삼아 뱀)으로 판별이 먼 그 교종[敎宗(교종)]을 전하니 바다에서 운반함이 공경스레 기쁘네”

조선 후기인 1650년에 제작된 승탑의 탑신석 한 면에 새겨진 ‘逍遙大師之塔 順治六年庚寅’이라는 명문으로 인해 임란 이후 연곡사를 중창한 소요태능의 승탑임이 밝혀졌다.⁶⁰⁾ 소요태능은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로 그 문하 4대파 중 1파를 이

58) 새로이

59) 잠깐 사이

60) “보개산 심원사, 지리산 燕谷寺, 頭輪山 大菴寺에 부도가 있다.” 『逍遙宗師傳』, 1894년(탈고),

정도로 이름 높은 승려이다. 소요대사는 俗姓은 吳氏이며 담양인으로 13세에 출가하여 浮休禪師에게 경전을 배우고 西山會下에서 청정본원의 이치를 깨달아 선을 중시하는 기풍을 충실히 전수하였다. 세속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출가수행에 의해서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었으며 왜란 때에는 참전하지 않고 수행자적 자세를 순수하게 지켰다. 서산과 사명 등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무렵 소요대사는 鞭羊彦機와 함께 서산으로부터 물려받은 불법을 충실하게 발전시키는데 진력하고 있었다.⁶¹⁾ 소요대사의 법맥은 枕肱懸辯, 海運敬悅, 霽月守一 등의 제자로 이어져 조선 후기 불교의 중요한 하나의 문파를 형성하였다.⁶²⁾

중관해안[中觀海眼, 1567~?]은 그의 문집인 「中觀大師遺稿」의 <題燕谷寺會>에서 연곡사를 계림의 禪苑이었는데 지금은 律虎와 義龍이 사는 사찰로 묘사하고 있다.⁶³⁾ 이는 1627년에 소요대사에 의해 중창된 연곡사가 소요 태능의 門風을 계승하면서 엄격한 계율과 활발한 講學활동을 한 사찰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⁶⁴⁾

조선 후기인 1655년(효종 6, 順治 12)에 연곡사에서 「釋遊如來成道記」의 목판을 開板하였다.⁶⁵⁾ 이는 조선 후기의 講會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이다. 여기에는 대선사 각성(覺性), 선덕 一能·勝海·智演·慧寬 등과 鍊板에 神應비구, 刻字에 竺信비구와 英益비구, 書寫에 明晏安비구, 공양주 守學비구, 화주 道英비구 등의 목판 제작자의 이름이 전한다.⁶⁶⁾

조선 후기인 1655년에 담허재(澹虛齋) 김지백(金之白)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청학동과 지리산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유람록인 「유두류산기(遊頭流山記)」에 ‘燕谷寺路中次國益求禮道中韻’이란 시를 남겼다.⁶⁷⁾

1957년(간행), 『東師列傳』.

범해 撰·김운세 譯, 1994, 『(완역본)동사열전 :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166쪽.

61) 李晉吾, 1990, 「逍遙大師-풍운의 시대에 任運自存할 詩僧」, 『한국불교인물사상사』, 民族社, 335쪽.

62)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5쪽.

63) 海眼, <燕谷寺會>, 「中觀大師遺稿」, 『韓國佛教全書』 8, 210쪽.

64)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6쪽.

65) 朴相國 編, 1987,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智異山 : 燕谷寺, 孝宗 6, 釋迦如來成道記, 順治十二年乙未(1655)夏智異山燕谷寺開板, 序: 時大宋景祐元年(1034)仲春既望書, 藏書記: 錦海[景祐元年(1034)崔育千述(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소장)]

66) 곽승훈 외, 2009, 『지리산권 불교자료』 1-간기편,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97쪽.

67) 유두류산기(遊頭流山記)(1655년)는 『담허재집(澹虛齋集)』 권5에 수록되어 있다. 김지백(金之白)[1623~1671]은 1655년(효종 6)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나흘간 하동군의 청학동 일대를 유람하였다. 유람록 말미에 의하면, 나흘간의 유람에서 일행들이 지은 100여 편의 한시를

조선 후기인 1668년에 펴낸 이우(李侯)의 금석문 탁본 서첩인 『大東金石書』에는 현각선사탑비 탁본이 전하는데 비석 파손 흔적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수록되었다.⁶⁸⁾

조선 후기인 17세기 중반 경에 청학(淸學, 1570년~1654년)이 화주하여 만든 자연석 맷돌이 삼층석탑 아래에 놓여 있다. 소요대사와 같은 서산대사의 문도로서 장흥 관산인이며 보림사에서 출가했다.⁶⁹⁾

17세기 중엽을 살았던 소란(蘇蘭)은 남원사람으로 늦은 가을 단풍놀이에 대한 감상을 <薰谷寺晚秋>라는 시에 담았다.⁷⁰⁾

勞生分外作閑遊 고생스러운 인생이 분수 밖 한가로운 놀이를 하니
古寺楓林已晚秋 옛 절의 단풍 숲은 이미 늦은 가을이네

1권의 시집으로 만들면서 기문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유람 일정은 전라북도 남원을 출발하여 구례 화엄사(華嚴寺) → 연곡사(燕谷寺) → 화계 쌍계사(雙溪寺) → 불일암(佛日庵) → 신흥동 → 칠불암(七佛庵)에 들러 옥부대(玉釜臺)를 둘러보는 것으로 끝나며, 이듬해에 다시 산행할 것을 기약하였다.

김지백(金之白)은 자신의 거처가 하동군의 청학동과 인접한 남원임에도 아직 한 번도 유람하지 못하였는데, 마음속의 염원을 풀기 위해 유람에 나선다고 하였다. 전라남도 구례를 거쳐 청학동을 찾는 일정인지라 구례 지역의 유적인 대흥사(大興寺)와 연곡사, 천은사(泉隱寺) 등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쌍계사를 거쳐 불일암에 오른 김지백은 불일폭포를 일러 중국의 여산폭포(廬山瀑布)나 우리나라 송도의 박연폭포와 견줄 만하다고 칭송하였다. 김지백의 언급에 의하면, 당시 지리산에 산재한 사찰은 약 370개 정도라 하였다.

「유두류산기」는 17세기 호남 지역에 은거하던 재야 지식인이 지리산 청학동을 유람한 기록으로, 당시 호남 학자의 지리산 인식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디지털하동문화대전, 강정화)

68) 『大同金石書』는 李侯가 1668년(현종 9)에 우리나라 금석문 탁본을 연대순으로 엮은 책으로 답이다. 李侯, 『大同金石書』,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2, 47쪽.

69) 청학(淸學)[1570년(선조 3)~1654년(효종 5)] 성은 홍씨(洪氏). 자는 현주(玄珠), 호는 영월(詠月). 전라남도 장흥 출신. 아버지는 광명(光明)이며 어머니는 강씨(姜氏)이다. 13세에 출가하여 가지산 보림사(寶林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이때 강원의 교과과목인 사집과(四集科)와 사교과(四教科)의 경전을 배웠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며 고행 정진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수행에 매진하였으며, 지리산의 부휴선사(浮休禪師)를 찾아 도를 묻고 다시 묘향산 청허선사(淸虛禪師)를 찾아 깨달음을 얻고 전법제자(傳法弟子)가 되었다. 그 뒤 후학들에게 불경과 선을 가르치면서 임진왜란으로 쇠퇴하여진 불교의 중흥에 헌신하였다. 만년에는 금강산에서 좌선하였고, 지리산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특히 시를 즐겨 지었으며 이들을 통하여 그의 선적 체험과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나이 94세로 임종계(臨終偈)를 남기고 앉은 채 입적하였다. 제자들이 화장한 뒤 사리를 거두어 보림사에 탑을 세웠다. 법맥을 이은 제자로는 무하자(無何子)·학순(學淳) 등 10여 명이 있으며 저서로는 문집인 『영월집』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익, 1997년)

70) 蘇蘭, <薰谷寺晚秋>

金晋郁, 2011,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54쪽 再引用.

盡日沙門無客到 하루 종일 사문엔 나그네가 이르지 않으니
雅懷時復向清流 아회를 회복하고 청류를 구했네

침굉현변[枕肱懸辯, 1616년~1684년]도 17세기 후반 경에 연곡사에 머물렀다.⁷¹⁾ 하루는 침굉이 지대방에 팔뚝을 베고 모로 누워있는데 대중 모두가 운력을 나가자 하자 나는 지금 아주 바쁘다며 돌아누웠다는 일화가 선암사에 전한다.

석실명안(石室明眼: 1646~1710년)은 1678년(숙종 4) 이후 연곡사 등지에 머물면서 수선(修禪)에 몰두하거나 설법하였다.⁷²⁾

71) 현변[懸辯, 1616년~1684년]: 조선후기 천봉산 처우화상(處愚和尚)에게 출가해 선암사 주지 등을 역임하며 『枕肱集』을 남긴 승려. 성은 윤씨(尹氏).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이눌(而訥), 호는 침굉(枕肱). 어머니는 최씨이다. 8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9세에 천봉산 처우화상(處愚和尚)에게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13세 때 지리산으로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수제자인 태능(太能)을 찾아가 그의 법을 계승하고 오도(悟道)의 선승(禪僧)이라는 말을 들었다. 19세에 윤선도(尹善道)가 양자로 삼아 환속시키려 하였으나 울면서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 뒤 윤선도가 을사사화로 광양에 유배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 「창랑가(滄浪歌)」를 불러 위로하였다고 한다. 특히 윤선도의 영향을 받아 국문가사를 남기고 있다. 선교(禪敎)에 밝았을 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고 서예와 문학에도 능통하였으며, 말년에는 염불이야말로 성불의 직절문(直截門)이라는 서산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염불에서 안심처를 구하였다. 선암사(仙巖寺) 주지를 비롯하여 송광사(松廣寺)·연곡사(燕谷寺) 등 호남지방의 대찰에 머물렀으며, 전라남도 금화사(金華寺)에서 입적하였다. 자신의 유체(遺體)를 화장하지 말고 냇가나 숲속에 두어 까마귀나 솔개에게 공양하도록 유언하였으므로, 제자들이 시신을 금화산 봉우리 바위틈에 넣었으나 새들도 그의 시신을 범하지 않고 안색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서로는 『침굉집』 2권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영길, 1997년)

72) 명안(明眼: 1646~1710년) 속성은 장씨. 자는 백우(百愚), 호는 석실(石室) 또는 설암(雪巖). 진주 출신. 아버지는 근수(謹守)이며, 어머니는 신씨(申氏)이다. 12세 때 출가하여 지리산 덕산사(德山寺) 성각(性覺)의 제자가 되었고, 15세 때 엄비(掩鼻)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 뒤 무영(無影)의 문하에서 10년 동안 선과 교를 함께 닦았다. 1672년(현종 13) 가을에 무영이 죽자 전국의 모든 산을 편력하면서 수행하였다. 이 때 황령선사(黃嶺禪社)에서 교화하고 있던 백암(柏菴)이 편지를 보내 명안을 불렀으므로, 백암을 4년 동안 모시면서 화엄원융(華嚴圓融)의 뜻을 전해 받았다.

1678년(숙종 4) 백암의 명을 받고 방장산 불장암(佛藏庵)을 주관하였다. 그가 불장암에서 개당(開堂: 가르침을 펴)하자 많은 승려들이 몰려와 배우기를 청하였고, 그는 당시 호남의 종장(宗匠: 큰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뒤 안국사(安國寺)의 금대암(金臺庵), 지리산의 심적암(深寂庵), 오대산의 내원암(內院庵), 방장산의 대원사(大源寺)·울곡사(栗谷寺), 삼신산의 신흥사(神興寺)·화엄사(華嚴寺)·감로사(甘露寺)·연곡사(燕谷寺) 등지에 머물면서 수선(修禪)에 몰두하거나 설법하였다.

만년에는 오직 염불왕생문(念佛往生門)에 귀의하여 정토(淨土)에 태어나고자 하였다. 1709년 지리산의 칠불암(七佛庵)에 주석하면서 70여 명의 동지를 모아 서방도량(西方道場)을 결성하였고, 같은 해 겨울 회계의 왕산사(王山寺)로 옮겼다가 이듬해 4월 13일 서쪽을 향해 세 번 절하고 입적하였다. 세수 64세, 법랍 52세이다.

27일 뒤에 절 서쪽 원통동(圓通洞) 위에서 화장할 때 2편의 정골(頂骨)이 나왔으므로 1편은

조선 후기인 1686년에 정시한(丁時翰)이 기록한 『산중일기(山中日記)』 7월 27일과 30일 기록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한다.⁷³⁾ “...연곡사(燕谷寺) 조계문(曹溪門)에 이르니, 회나무와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암자는 넓었으며 단청이 찬란하여 참으로 화각보당(華閣寶堂)이라 할 만했다...”(병인년, 1686년, 7월 27일), “...연곡사(燕谷寺)에 가서 비전에 있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 지 지금 7년에 되었다. 사찰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영자전(影子殿)에는 진각국사(眞鑑國師) 이하 10여 명의 영정이 걸려 있었다. 기이하고 고상하여 볼만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또 여러 부도(浮屠)를 보았다...”(병인년, 1686년, 7

제자 전명(傳明)이 절 북쪽에 석종형(石鐘形)의 부도를 세우고 봉안하였고, 나머지 1편은 원준(圓俊)이 대원사 남쪽 시냇물 위에 무덤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명안은 1690년 가을 대원사에서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을 판각하였고, 1705년 가을에는 《심경약소연주기(心經略疏連珠記)》를 감로암 약사전(藥師殿)에서 편찬하였다. 그리고 교(敎)를 사교행위도(四敎行位圖)로 나누어서 소승교(小乘敎)·통교(通敎)·별교(別敎)·원교(圓敎)로 교판하였다.

그리고 끝에 대승원교(大乘圓敎)에 대해, “비록 그 위치(位次)가 있다고 하나 그 모두는 원교에 포함된다. 원교행인(圓敎行人)은 마치 산 위를 날아가는 새와 같다.”고 하여 화엄원교의 종지(宗旨)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만년에 염불로써 정토왕생을 구했는데, 그의 문집인 《백우집 百愚集》에 염불가(念佛歌)가 전하고 있다. 행주좌와(行住坐臥)는 물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동안이나 꿈속에서도 나무불[南無佛]을 염해 정토왕생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의 정토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법을 이은 제자는 14명이고, 그 중에서도 청운(淸胤)과 태휘(太暉)가 고족(高足)이다. 저서로는 유교를 모아 문인들이 편찬한 《백우수필 百愚隨筆》 1권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상현, 1996년)

- 73) 산중일기(山中日記)는 조선후기 학자 정시한(丁時翰)이 우리나라 명산 고찰 및 서원 등을 여행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견문록이다.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이 62세 때인 1686년(숙종 12) 3월부터 1688년(숙종 14) 9월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명산 고찰 및 서원 등을 여행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유람기이다. 1686년(숙종 12)부터 1688년(숙종 14)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명산 고찰 및 서원 등을 여행하면서 기록하였다. 『우담선생문집(愚潭先生文集)』 권19~20에 수록되어 있으며 1968년에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자료총서(人文科學資料叢書) 제1집으로 영인(影印) 간행되었다.

2권 2책으로 된 필사본이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차 여행은 1686년(숙종 12) 3월 13일에 원주(原州) 대야(大野)의 본가를 출발하여 이듬해 1월 23일까지로 속리산·지리산·덕유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2차는 1687년(숙종 13)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치악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3차는 같은 해 8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여 동안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마지막 4차는 1688년(숙종 14) 4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상도 안동·의성·청송 등지의 서원 및 팔공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정시한은 3년(22개월, 총 600일)에 걸쳐 네 차례의 여행 동안 전국의 명산 고찰을 유람하면서 매일매일 그날의 일과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였다. 특히 총 30여 차례에 걸쳐 주위 환경과 감상, 만난 승려들의 이름과 성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경숙, 2015년)

월 30일)⁷⁴⁾

정시한이 1686년에 연곡사에서 본 영자전(影子殿)의 진각국사(眞鑑國師) 이하 10여 명의 영정은 이보다 몇십 년 앞선 17세기 초 청매인오(青梅印悟)가 왕명으로 그려 봉안한 5대종사 영정과 조사당에서 더 확장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연곡사에 조계문이 있으며 비전의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빗돌이 깨진 지 7년에 되었고 사찰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영자전(影子殿)에는 진각국사(眞鑑國師) 이하 10여 명의 영정을 모셨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만 1679년에 비석돌이 깨졌다는 선각선사(禪覺禪師)는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오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비문을 보았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668년 서예가 이우가 우리나라 금석문의 탐본(搨本)을 연대순으로 엮은 서첩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실린 탁본의 상태가 양호한 현각선사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선각선사(禪覺禪師) 오독은 그동안 연곡사 동승탑을 도선(선각국사)의 묘탑으로 인식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산중일기(山中日記)』에서 그러한 오류의 최초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 밖에도 『산중일기(山中日記)』(1686년)에는 연곡사와 관련된 기록이 더 전한다.

5월 5일: 연곡사(燕谷寺) 노승 학의(學儀)와 희감(希鑑)이 색깔이 있는 떡을 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앉았다가 갔다

7월 10일: 연곡사(燕谷寺) 목수승 종해가 비를 맞고 찾아왔다. 동과(冬瓜) 한 개와 초혜(草鞋)를 특별히 만들어서 주었으며 약과를 대접하고 쌀 5승을 주었다.

7월 16일: 남암(南菴)의 승려 지한(智閑) 등 3인이 와서 일계의 물건들을 지고 갔다. 일계의 상좌 탁습(卓習)이 와서 물건들을 지고 갔다. 각담(覺湛)이 그의 상좌 정심(正心)으로 하여금 아침을 잘 마련하여 상하 모든 사람을 대접하였다. 명안이 저녁 식사를 잘 차려 상하 모두에게 대접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명학이 와서 보고 갔다.

연곡사 동구에 사는 양반 선필천(宣必遷)이 쌀을 빌리려 암자에 와서 좌수 김치형(金致形)이 나의 죽관(竹冠)을 사겠다고 말하고 오는 20일까지 회답을 보내면서 죽관 값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죽관을 가지고 갔다.

7월 17일: 아침식사 후에 금류동 승려 희안이 와서 보고 갔다. 길상암(吉祥菴)의 노승 효이(曉)가 와서 물건들을 지고 갔다. 대개 이 암자에서 겨우 옮겨 간 자들이다.

7월 18일 연곡사 비전(碑殿)의 승려 수확(守確)이 왔다가 바로 갔다. 한글 편지

74) 정시한(丁時翰) 산중일기(山中日記)(上)[1686년(숙종 12)~1688년(숙종 14)]

3장을 썼다. 경천이 연곡사로 갔다.

7월 19일 지리산 금강대 암자 곁에 있는 양진암(養眞菴)의 노장 각담(覺湛)이 자주 와서 만났다. 경천 노장이 연곡사에서 돌아왔다. 암자의 승려가 표고버섯을 따가지고 왔다. 입이가 운봉(雲峰)에 있는 실상사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영기와 천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추분 가서(家書)를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였다.

7월 21일 일계와 두 명의 어린아이가 남암으로 옮겨갔다. 근삼과 수확이 와서 보고 갔다. 길상대 승려 정안(淨眼)이 와서 보고 갔다. 거사 서경신(徐慶臣)을 만났다. 연곡사 비전의 승려 혜식(慧識)과 금선대(金仙臺) 승려 지찬(智贊)이 둘러보고 갔다. 정심(正心)이 경수의 바지를 지어주었다. 명안이 처음으로 경수의 홀옷 장의(長衣)를 지었는데 완성하지 못하였다. 승려들이 국수를 준비하여 상하의 모두에게 대접하였다.

7월 23일 금강대에서 양진암까지 120여 보의 거리였다. 아침 식사 후에 재차 다녀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세 번을 다녀왔다. 경수가 암자의 승려 3인과 함께 표고버섯을 따가지고 왔는데 겨우 1두 남짓되었다.

7월 24일 화엄사의 계담(戒湛), 추언(樞彦), 민련(敏聯)이 지나면서 들렀다. 암자의 승려 5인이 방목(房木)을 잘랐다. 아침식사 후에 양진암을 세 번 다녀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도 또 세 번 다녀왔다. 희안이 와서 보고 갔다.

7월 25일 잡물을 챙겨서 경천노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칠불암(七佛菴)의 승려 탁명(卓明)이 왔다가 즉시 갔다. 그는 정심의 상좌이다. 아침식사 후에 양진암을 세 번 다녀왔다. 저녁식사 후에도 세 번 다녀왔다. 각담 노장이 양미(糧米) 3승을 주었다. 승매(承梅)가 품질이 좋은 표고버섯 두어 되를 주었다.

7월 26일 길상대의 효이와 선혜가 와서 잡물을 운반해 갔다. 명학이 지나면서 보고 갔다. 아침식사 후에 양진암을 세 차례 다녀왔다. 경천 노장이 금선대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7월 27일 경천 노장은 경수와 함께 집을 나누어 지고 석등 80여 층을 내려와서 쉬었다. 10여 순을 대나무 숲 사이로 가면 시내가 있고 그곳에는 폭포수를 구경할 수 있었다. 반석에 앉아보니 해가 아직 정오가 되지 않았다. 길상대 암자의 효이, 청언, 선혜 정안, 해철은 모두 구면이어서 서로 반갑게 대하였다. 암자의 티가 산 중턱에 있어서 앞 시내를 굽어볼 수 있었다.

연곡사 조계문에 이르니, 회나무와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암자는 넓었으며 단청이 찬란하여 참으로 화각보당(華閣寶堂)이라 할 만했다. 잠시 앉아 있노라니, 근삼

이 순천(順天)에서 지나는 길에 들어와서 잠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 경천노사도 다시 갔다. 희안은 금류동 암자로부터 와서 보고 갔다.

대략 10여 리를 가서 금강대를 돌아보니, 아득한 1만 길의 봉우리가 마치 구름 사이에 있는 듯하였다. 아쉬운 생각에 슬픈 마음이 들어서 그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금강대는 볼만한 곳이 없었으나 앉아 있는 곳에는 상쾌한 기운이 있었으며 백호변으로 곧장 100여 걸음을 올라 가면 양진암이 있었는데 그 터가 절묘하였다. 동남쪽에 맛이 좋은 샘이 있었다.

안산으로 방정산(方正山)과 백운산(白雲山)이 나열되어 있으며 눈 아래 만학천봉(萬壑千峰)이 빙 둘러 있고 아침 저녁으로 구름과 안개가 1만 가지 형상으로 변화하니 시야의 광활함은 비할 곳이 없었다. 속세가 멀어서 마치 신선 세계와 같은 데도 승려나 속객은 다 그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하였다. 유독 각담 노장은 나이가 73세인데 거저 미친 체하고 함부로 행동하니, 사람들은 그에게 도가 있는 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윤판옥을 지어놓고 혼자 거처하면서 수련한지가 이미 10여 년이나 되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가벼운 운동도 하지 않았다. 식후에 걸음도 익힐겸 하루에 4, 5번씩 찾아갔더니 오래 지난 뒤에 마음을 터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였다. 작별하기에 앞서 은근한 정이 있었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니, 그 땅과 사람이 이 면내에서는 제일이었다.

조전암에서 유숙하였다. 승려가 저녁을 준비하여 상하 모두에게 대접하였다. 식 후에는 냇가에 다녀왔다.

7월 28일 아침식사를 한 뒤에 냇가에 다녀왔다. 절에서의 거리는 555보였다. 경수가 금선 범왕사 암자에 갔다. 연곡사의 방장 여인(如印) 노장은 갑인생이고 희감(希鑑)은 갑술생인데 두 사람이 와서 보고 곧 갔다. 경수가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냇가에 다녀왔다. 정안이 물건을 운반하려고 나갔다. 효의가 나와서 침굉당(枕肱堂)의 필적과 시를 보여주고 또 저의 시와 모(毫)의 시를 보여 주었다. 모는 그들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 침굉시 한 장을 구하여 도항(道恒)에게 보여 주고자 하였다. 희안이 와서 보고 갔다. 일명은 성도(成道)라고 하였다.

7월 29일 경수가 아침식사 후에 금강대로 가니 각담과 경천 노장이 갖가지 채소와 과일을 가지고 왔다.

7월 30일 저녁을 먹은 뒤에 연곡사에 가서 비전에 있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지가 지금 7년이 되었다. 사찰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영자전(影子殿)에는 진감국사(眞鑑國師) 이하 10여 명의 영정(影幀)이 걸려 있었다. 기이하고 고상하여 볼 만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또 여러 부도(浮屠)를 보았

다. 길에서 정안을 만나 함께 돌아왔다. 또 희안을 만났는데 1명은 성도라고 하였다. 암석 위에 앉아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작별하였다.

암자에 이르니, 명안이 또 산음(山陰)에 있는 지국사(智國寺)로 들어갔다. 승려 처인(處仁)의 나이가 28세인데 사람 됨됨이가 조용하여 대화할 만하였다. 지성(智性)의 나이는 39인데 비전에서 만나 부도가 있는 자리까지 함께 가서 오랫동안 앉았다가 갔다. 본사의 승려 학의(學儀) 노장이 중간에 대략 10여 리를 따라와서 전송하였다.

8월 2일: 연곡사의 승려 철영이 왔다가 바로갔다.

8월 3일: 연곡사 승려 선인과 구례에 사는 정자선(鄭自善)이란 상놈이 저녁에 왔다. 내일 새벽이 제삿날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8월 4일: 아침에 연곡사 승려들 수십 명이 와서 아침을 먹느라고 소란스러웠다. 연곡사 승통 여인(如印)이 햅쌀로 아침을 잘 차려 가지고 상좌 최광두(崔光斗)를 데리고 비가 오는데도 지고 와서 대접하였다.

8월 5일: 효이와 청언이 철물을 가지고 연곡사로 갔다. 효이 등이 문의 돌쩌귀 등 잡물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왔다. 길상대에는 바람이 그다지 심하게 불지 않았으나 금강대와 오향대(五香臺)에는 기왓장이 모두 날리고 큰 나무가 뽑혔다. 대체로 바람은 서쪽에서 부는데 이곳은 동쪽으로 향하여 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8월 10일: 연곡사 승려 선인이 와서 초피와 좌반 한 포대를 주고 갔다.

8월 12일: 경수가 금강대를 다녀오면서 무김치를 얻어 가지고 왔다.

8월 13일: 암자의 승려가 경수를 연곡사로 보내서 두부 비지를 구해가지고 오게 하였다.

8월 15일: 아침식사 후에 암자의 승려와 선혜를 작별하고 연곡사로 내려왔다. 길에서 4, 5차례 쉬고 절에 있는 승방에 도착한 다음, 처음으로 법당에서 밥을 먹었다. 비전(碑殿)에 들어가 한동안 앉았다가 법당을 두루 보니, 법당이 자못 웅장하고 삼불(三佛)이 근엄하였다. 해인사의 불상(佛象)과 비슷하였으나 단지 원광(圓光)만 없었다. 각 방이 초라하고 잡초가 뜰에 가득했다. 승려들이 가난해서 앞으로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애처로웠다.

승통 여인과 노승 학의(學儀)와 희감(希鑑)이 모두 법당으로 와서 보았다. 여러 승려들이 모여서 보았고 신감(神鑒)도 왔다. 신감과 함께 와서 머물고 있는 동전(東殿)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신감이 저녁 식사를 차려서 주었다. 선인(禪印)도 와서 보았다. 식사를 한 뒤에 호열(湖悅)과 함께 금선대(金仙臺)에 올라갔다. 3, 4리를 가니 암자에 도착하였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단청은

해 놓은 전각이 화려하였다. 암자의 승려 성인(省印)이 나와서 맞이하였다. 잠시 앉아 있다가 법당으로 왔다. 대위의 소나무와 대나무가 좁은 길에 푸른 빛을 띄고 있어서 마음과 정신이 상쾌하였다. 1, 2리를 가서 암자에 도착하니, 암자의 터가 꽤 묘해 보였다. 암자도 조용하였다. 암자의 승려 신은과 처민(處敏)이 서로 영접하였다. 상좌 국림(國林)은 나이가 경술생인데 사랑스러웠다. 비전의 승려 행철이 뒤따라 와서 말을 하다가 갔다. 금선대의 승려 성인도 따라와서 한동안 앉아서 말하다가 갔다. 대략 10여 리를 행하였다.

이러한 유람기에는 연곡사(燕谷寺)의 승려는 노승 학의(學儀)와 희감(希鑑), 승통 여인(如印), 신감(神鑑), 목수승 종해, 철영, 선인(禪印), 비전(碑殿)의 승려 행철·수확(守確)·혜식(慧識), 승통 여인(如印)의 상좌 최광두(崔光斗), 남암(南菴)의 승려 지한(智閑) 등 3인과 일계, 일계의 상좌 탁습(卓習), 금선대 암자 승려 성인(省印), 금류동 승려 희안·지찬(智贊), 길상암(吉祥菴) 노승 효이와 승려 정안(淨眼)·청언·선혜·해철, 양진암(養眞菴)의 노장 각담(覺湛), 또 다른 암자 승려 신은과 처민(處敏), 상좌 국림(國林) 등 28명이 기록되었다.

연곡사에는 비전과 동전(東殿), 조계문이 있으며 암자는 길상대, 금강대, 금류동, 금선대, 오향대(五香臺), 양진암(養眞菴), 조전암, 법왕사 등 8개이다.

연곡사 법당에서 밥을 먹고 비전(碑殿)에 들어가 한동안 앉았다가 법당이 자못 웅장하고 삼불(三佛)이 근엄하다거나 각 방이 초라하고 잡초가 뜰에 가득했으며 승려들이 가난한 삶을 애처로워했다. 침평당(枕肱堂)의 필적과 시도 보았다고 한다.

〈표 3〉 연곡사 주변 암자(26개소) * 일부 중복 가능

번호	폐사지명	위치	기록문헌	비고
1	서굴암	토지면 내동리	현 지도 전남대지표조사(1993) ⁷⁵⁾	현존
2	외곡리대밭골사지	토지면 외곡리 산58-1번지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⁷⁶⁾	불낙사 아래
3	내동리바느점골사지	토지면 내동리 100-2번지 일원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바느점골
4	내동리법왕대사지	토지면 내동리 산62-7번지 일원	정시한의 산중일기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당재마을, 자연동굴
5	내동리사당골사지	토지면 내동리 산368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미확인	사당골

번호	폐사지명	위치	기록문헌	비고
6	내동리사지	토지면 내동리 1030번지 일원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연곡사 북승탑 위쪽 ‘북암지’
7	내동리에양대사지	토지면 내동리 산368번지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직전마을 북쪽의 판 독골 ‘금류동암터’
8	내서리사지 1 [길상대암(吉祥臺庵)]	토지면 내서리 산216번지	정시한의 산중일기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연곡사 북서쪽 ‘吉祥寺址’
9	내서리사지 2	토지면 내서리 699번지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미확인	내서리 남산마을 회관 위
10	내서리심방골사지 1	토지면 내서리 920-1번지 일원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연곡사 주차장 남서쪽 산사면
11	내서리심방골사지 2	토지면 내서리 928번지 일원	전남대지표조사(1993) 한국의 사지 미확인	연곡사 연곡천 건너 남서쪽 경사면
12	수월암(水月庵)	토지면 내동리	정시한의 산중일기	답사확인
13	오향대암(五香臺庵)	토지면 내동리	정시한의 산중일기	답사확인
14	금강대암(金剛臺庵)	토지면 내동리	정시한의 산중일기	답사확인(직전 마을 우측 골짜기)
15	금류동암(金流洞庵)	토지면 내동리	정시한의 산중일기	답사확인
16	삼일암(三日庵)	토지면 내동리	정시한의 산중일기	답사확인
17	금선대(金仙臺)	토지면 내동리	정시한의 산중일기	답사확인
18	양진암(養眞庵)	토지면 내동리	정시한의 산중일기	답사확인
19	북암(北庵)	토지면 내동리	구례군지	
20	용수암(龍樹庵)	피아골	동사열전	피아골 삼거리 우측 내서천 상류
21	무착대(無着臺)	피아골	민간전승	답사확인
22	남암(南庵)	토지면 남산리		
23	광선암	토지면 오미리	화엄사사적기	
24	운수암	토지면 외곡리		
25	적기암(赤旗庵)	토지면 문수리	화엄사사적기	
26	불락사(佛樂寺)	토지면 외곡리		현존
27	문수암(문수사)	토지면 문수리 74		현존

『산중일기(山中日記)』(1686년)에서 연곡사 동승탑을 도선(선각국사)의 묘탑으로 인식하는 오류의 근거를 찾았지만 화엄사와 연곡사에서 도선 역할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라 말 헌강왕대에 道詵이 화엄사의 도량을 넓혀 총림대도량

75) 최인선, 「연곡사 주변의 불교유적」, 1993,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박물관.

76) 『한국의 사지(현황조사 보고서)』 전남 1, 2011,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원.

을 열었다거나 동리산문 대안사(지금의 곡성 태안사)는 동리산문의 방계인 도선의 옥룡사파가 왕건과 연결되기 이전에는 후백제 견훤과 밀착되었고 거리상으로 가까우며 명종 2년(1172년) 도선의 비를 세우는 일에 화엄사 僧衆들이 동원되는 일도 있어 연곡사와 도선의 관련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결정적으로는 『동사열전』에서 도선의 호를 연기조사라 한다. 더구나 태안사 대웅전을 중창(1755년)한 동파정심(桐坡定心) 禪師가 1779년에 대웅전을 중건할 정도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혀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 지 지금 7년에 되었다.”는 1686년 정시한의 비석과 비문에 관련된 인식의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승탑비의 빗돌에 비문이 새겨졌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인 1727년에 춘주(春洲) 김도수(金道洙)⁷⁷⁾의 『남유기(南遊記)』에 “陟與家人避于智異山燕谷寺”라며 ‘연곡사(燕谷寺)’와 만수동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내가 옛날에 지리산(智異山) 연곡사(燕谷寺)의 북쪽 수십 리에 이른바 만수동(萬壽洞)이 있다는 것을 들었소. 세속에서는 신라 말기에 몇 명의 고관(高官)이 계림(鷄林)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집안 식구를 거느리고 함께 숨었는데, 지금도 기와와 주춧돌의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며, 골짜기 안은 깊숙하나 널찍하고 땅이 기름져서 벼를 심을 수 있다고 한다오. 지난 2월 마침 남원(南原)에 갔었는데 연곡으로 길을 나서 절의 승려에게 물으니, 승려가 ‘이곳에서 40리를 가면 골짜기가 나오는데 안은 매우 깊숙하고 어두워 별로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 시험 삼아 두세 명의 승려와 더불어 지팡이를 짚고 깊숙히 찾아보았는데, 여러 층의 빙설 때문에 방향을 분별할 수 없는데다, 곳곳에서 곰과 호랑이의 발자국을 보고 두려워 중도에서 돌아왔다고. 그러나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소. 그대의 이번 여행은 응당 연곡을 지날 것이니 나를 위하여 찾아주기를 바라오.”라는 송군의 바람을 담아놓았다.⁷⁸⁾

77) 김도수(金道洙)[?~1742년(영조 18)] 본관은 청풍(淸風). 호는 춘주(春洲). 음보(蔭補)로 공조정랑·지례현감(知禮縣監)·통천군수(通川郡守)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춘주집(春洲集)』과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이 전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동수, 1996년)

78) 『남유기(南遊記)』: 1727년 춘주 김도수가 경상남도 하동군의 청학동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유람록. 김도수(金道洙)[1699~1733]의 『춘주유고(春洲遺稿)』 권2에 수록되어 있다. 김도수는 1727년(영조 3)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23일 동안 하동군의 청학동 일대를 유람하고, 합천 해인사로 길을 잡아 그 일대를 두루 둘러보았다. 이어 충청도 화양동(華陽洞)에 들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유적지를 구경한 후 서울로 귀가하였다.

김도수는 금산군수(錦山郡守)로 재직하던 중 관직을 그만두고 곧장 유람길에 올랐는데, 하동

조선 후기인 1728년(영조 4)에 소론파 이인좌가 집권 노론세력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호남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승려 출신인 둔갑술로 명성이 자자한 술사(術士) 송하(宋賀)와 승려 대유(大有, ?~ 1728)가 쌍계사와 연곡사를 거점으로 삼아 지리산의 산적 수천 명을 모아 태백산·덕유산·변산 일대의 명화적들과 연합하여 이인좌의 반란에 가담하고자 했는데 이인좌의 반란이 실패하자 지리산에서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⁷⁹⁾

조선 후기 1745년(영조 21) 10월 21일에 “奉常寺에서 삼남읍의 分定 栗木之例를 革罷하고 연곡사를 主材封山으로 삼아 밤나무를 잘 가꾸게 하자는 啓請을 왕이 허락하였다.”고 한다.⁸⁰⁾ 이로 말미암아 왕가의 神主木(位牌木)을 봉납하게 되자

군 청학동 유람의 구체적인 일정만을 살펴보면 금산을 출발하여 순창 → 곡성 → 구례 → 화개 → 쌍계사(雙溪寺) → 불일암(佛日庵) → 청학동 → 신흥동 → 칠불사(七佛寺) → 삽암(鋏巖) → 악양 → 하동을 거쳐 진주로 길을 잡았다. 동행은 김옥성(金玉聲), 양경조(梁慶祚), 김준필(金俊弼)이다.

일정에 따른 산문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유람 도중 접하는 명승의 유래와 역사적 상황, 유람자에 의해 표출되는 현지 상황, 주변 경관의 묘사 등 세밀한 표현력이 돋보인다.(하동군 향토문화전자대전, 강정화)

- 79) 김란록, 우리나라 역사(이이화, 려강출판사, 1990년 : 「한국불교인명전자사전」 재인용)

영조실록[영조 4년 무신(1728)3월 29일(기묘)]

<정사효가 연곡사·쌍계사에 적도가 둔취해 있다고 치계하다>

영남의 적보(賊報)가 날로 이르고, 전라 감사 정사효가 또 치계하기를 “남원의 연곡사(燕谷寺)와 쌍계사(雙溪寺) 두 절에 적도가 둔취(屯聚)해 있습니다.”하였다.(嶺南賊報日至, 全羅監司鄭思孝又馳啓言, 南原 燕谷、雙溪兩寺, 有賊徒屯聚。)

- 80) 所謂 燕谷寺栗木, 間式年斫伐勿諱, 兒木病木, 苟充株數, 外完內傷, 不合者居多, 其在敬謹之道, 實爲未安. [승정원일기 934책 (탈초본 51책) 영조 17년 8월 19일 신해 18/22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國用主材栗木을 專意禁養해야 하는데 僧役이 요사이 侵責되는 일이 많으니 當該道臣을 推考 警責하고 義僧의 役을 영구히 除滅하라고 申飭을 청하는 奉常寺의 草記 “故己酉年, 因全羅監司狀請, 本道 求禮縣·燕谷寺一洞, 栗木甚盛, 且其地勢深僻, 木品淨潔, 實合於國用之材.”[승정원일기 971책 (탈초본 53책) 영조 20년 4월 2일 기유 13/18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영조실록[영조 21년 을축(1745) 11월 21일(무자)]

<봉상사에서 삼남의 울목 분정을 폐하고 구례현 연곡사로 주재 봉산하기를 청하다>

봉상시(奉常寺)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삼남(三南)의 읍(邑)에 울목(栗木)을 분정(分定)하던 예를 혁파하고 구례현(求禮縣) 연곡사(燕谷寺)로 주재 봉산(主材封山)을 만들어 울목을 장양(長養)하도록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戊子/奉常寺啓請: “革罷三南邑分定栗木之例, 以求禮縣 燕谷寺爲主材封山, 長養栗木。” 允之。)

河東地雙溪 등은 雜役을 금하고, 栗木만 배양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奉常寺의 草記[승정원일기 1001책 (탈초본 54책) 영조 22년 4월 17일 임오 10/13 기사 1746년 乾隆(淸/高宗) 11년] 趙明履, 以奉常寺都提調·提調意啓曰, 本寺曾以革罷統營句管 湖南求禮縣燕谷寺櫟木禁養之地, 爲其國用主材栗木封山之意, 草記蒙允後, 發遣郎廳摘奸, 則 燕谷寺接界連麓之地, 嶺南河東府雙溪洞, 山勢幽淨, 栗木尤多, 極可合於國用之材. 以 求禮縣一處所封栗木, 勢難繼用, 河東府雙溪

연곡사 주지가 都提調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관 향리들의 경제적 침탈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⁸¹⁾

1745년의 栗木封山에 대한 내용을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영조(英祖) 21년 을축(乙丑) 서기 1745년 연곡사 주재(主材)인 밤나무(栗木) 벌채를 금하는 봉산(封山: 나라에서 도벌을 금하는 것)이 되었다. 봉상시(奉常寺: 조선초때 시호와 제사를 맡아 본 관청)가 계청(啓請)하여 삼남읍(三南邑: 충청·전라·경상도)을 혁파(革罷)하여 밤나무를 분정(分定: 나누어 정함)하였는데 실예로서⁸²⁾ 구례 연곡사가 주재목이 되어 봉산(封山)이 되었다. 밤나무를 장양(長養: 기르는 것)함이 진실이다.(이조실록) 이로부터 연곡사 주지로 도제조(都提調: 조선조벼슬)로 차출했다.”

“나라에서 봉산(封山)으로 쓴 것이 셋 있으니 첫번째가 연곡사로 조봉산(祖封山: 할아버지격인 봉산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쌍계사로 부봉산(敷封山: 아버지격이라는 뜻)이며, 세 번째가 순천 송광사로 손봉산(孫封山: 손자격이라는 뜻)이다.”

조선 후기인 1750년대에 이언근(李彦根, 1697-1764)이 기록한 『유방장록(遊方丈錄)』(1753, 1756)에는 지리산의 생생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소위 연곡사(鷲谷寺)라는 곳으로 절은 고개에서 멀지 않았다. 그 이름을

洞, 亦宜一體封標, 而其所禁養之道, 專屬於僧徒輩然後, 可以滋植守護. 河東地雙溪·神興·七佛等寺, 依 求禮鷲谷寺封山例, 本官責應外, 其他凡干雜役, 一併勿侵, 以爲專意禁養栗木之意, 分付道臣,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1063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12월 29일 무술 23/26 기사 1750년 乾隆(淸/高宗) 15년: 尹光毅, 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提調意啓曰, 每式年斫伐栗木, 分定於 嶺南·湖南, 而已酉以後, 湖南則因道臣狀請, 都斫於 求禮鷲谷寺, 以除各邑分定之弊. 嶺南則自丙寅春, 始定封山於 河東雙溪寺矣. 雙溪封山, 以其四標之初不分明, 每與統·兵營相爭界限, 延及於封山僧徒. 故今年冬, 使 湖南栗木敬差官, 馳進看審, 則其所報內, 以爲雙溪地勢, 距外水口爲三項, 而第二第三項則不可廣占, 故以寺前五里許 獐項爲定界, 立石以標. 西無松山之禁, 東無竹田之侵, 可得以專意培養, 栗木足當 嶺南一路輪斫之材. 而且言僧徒非但有禁護封山之勞, 每式年獨當斫取栗木之役, 則宜不與他寺僧, 一例混侵雜役. 監兵營地方官所捧紙地與各樣差役, 一依封山節目, 盡數減除. 南漢山城義僧之役, 亦爲依前啓下關, 更加申飭, 永爲減除, 使 雙溪寺僧徒, 安集居生, 使栗木封山, 永久滋長. 自後式年爲始, 都斫於此洞, 以除 嶺南一道三十一邑栗木四百株分定之弊, 何如? 傳曰, 允。

81)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6쪽.

82) 실 예로서

모가령이라 한 것은 풍수가들이 절을 제비집의 형국으로 생각했으니 이 고개는 새끼들이 떼지어 앉은 들보가 아니겠는가? 새끼는 어미 가까이에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절 앞에는 교량이 있었는데 다릿발이 매우 높고 십수칸이나 되었다. 앞을 지나 누각에 올랐다. 사면이 울창하고 온산이 모두 밤나무숲인데 지금은 알밤이 떨어질 때라 원근에서 남녀들이 길을 매우도록 와서 좁은 부역을 하고 있었다. 가족을 이끌고 와 누각 아래에 임시거처를 정하여 자리를 펴고 별을 찍고 있는 자들이 있어 물어보니 혹 용담이나 장수 등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절은 구례에 속하지만 그 조세는 매해 명례궁(明禮宮, 경운궁)에 바치고, 조정에서 둘레에 올라리로 봉한 것은 신주에 쓰는 나무를 별목하는 곳이기 때문으로, 경차관(敬差官, 임시로 지방에 파견한 관리)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식 후에 도선의 비가 서편 전각 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았다. 비는 이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었다.”⁸³⁾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연곡사 탐비를 기술한 부분이다. 연곡사 서쪽 전각 뒤에 도선의 비가 있었다 하였는데 이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쪽이라면 현재 현각선사탐비를 의미하고 이수에 ‘□覺王師碑銘’의 전액 중 ‘玄’ 글자가 희미해서 발생한 일로 이해된다. 『산중일기(山中日記)』(1686년)에서 보았다는 비전의 현각선사(玄覺禪師) 비문을 선각선사(禪覺禪師) 비문으로 잘 못 이해한 오류가 무비판적으로 70여 년간 그대로 계승된 사례로 여겨진다. 절을 제비집의 형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절 앞에는 다릿발이 매우 높은 십수 칸이나 되는 교량이 있고 그 앞에 누각이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한다.

조선 후기인 1779년에 동파정심(桐坡定心) 禪師에 의한 대웅전 중건 사실을 「智

83) 이언근(李彦根 1697-1764): 자는 회보(晦甫), 호는 만촌(晩村), 본관은 광산. 광산에서 출생하여 중년 이후 선향인 남평에 은거하여 평생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당시 호남에서 문명을 떨쳤고, 시문집으로 《만촌집(晩村集)》을 남겼다.

그의 『유방장록(遊方丈錄)』은 2차례의 지리산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사실 첫 지리산 나들이는 지리산 유람이라기보다는 지리산의 인근 고을을 스쳐간 것일 뿐이다. 즉 1753년 「남원 - 운봉 - 소년대(*점필재의 하봉 인근 소년대가 아님) - 함양 엄천사 - 산청 환아정 - 단성 - 진주 남강 축석루 - 하동 - 악양 - 화개」를 지나갔다.

두 번째, 1756년의 여정은 이렇다. 「집 - 창평 - 옥과 - 곡성 - 남원 - 화엄사 - 구마촌 - 대수천(한수내) - 모가령(목아재) - 연곡사 - 당치 - 칠불사 - 삼신동 각자바위, 능파교터 - 신흥사 - 세이암 - (국사암) - 환학암 - 불일암(청학봉(향로봉), 불일폭포) - 쌍계사 - 화개 - 대수천 - 보전촌 - 귀가」

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자세히 서술했다.

“정조(正祖) 3년 기해(己亥) 서기 1779년 동파당(桐坡堂) 정심선사(定心禪師)가 대웅전을 증건했다. 태안사 대웅전 중창기에서 간략히 인용해 보면 동파스님은 척수(隻手: 왼작손)로 홀로 대웅을 막아 뿌리치고 받들어 당년 안에 원만히 큰 공을 이루었다. 나에 국사(國師) 신력(神力)이 어찌 회회(恢恢: 넓고 큰 모양)한가 연장으로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도 편하다. 네해를 지나 기해년 또 이곳 지리산으로 바람처럼 이주하여 연곡사에서 다시 대법당일을 하니 들린 향기 아름답다. 일용(一龍)을 닦아 대전(大殿)이 흥하니 마치 둘다 어렵다. 한탄함이 없으니 담언통숙(曇彦通宿) 인연같아 대사는 의논함이 밝아 동파스님은 가히 재사(才士)라 이른다. ... 이하 생략 ... ”

조선 후기인 1800년경에 『鳳城誌』에는 정유재란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왕용이 지은 현각선사비가 왜란 후에 문자의 획이 박락되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마침내 없어져서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⁸⁴⁾

『梵宇考』(1799년)에는 그동안 알려지던 것과 다르게 ‘今廢’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것은 1728년에 송하(宋賀)와 승려 대유(大有, ?~ 1728)가 연곡사에 반란군을 모아 주둔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가까운 시기인 1745년(영조 21) 연곡사 주지가 都提調가 되어 왕가의 神主木(位牌木)을 봉납하게 될 정도로 사세가 대단했다. 불과 몇 20년 전인 1779년에도 동파당(桐坡堂) 정심선사(定心禪師)가 대웅전을 증건했으며 1895년까지도 여전히 왕가의 신주목을 봉납하는 울목봉산지소였다. 연곡사가 실질적으로 폐사에 이르게 된 시기는 관아의 힘이 약해지고 고광순 의병활동했던 시기인 1895년 을미의병 이후부터 1907년까지의 사이로 추정된다. 『梵宇考』(1799년)의 ‘今廢’와 『鳳城誌』(1800년경)의 ‘현각비가 없어져 깨뜨려지게 되자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라는 기사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이 보인다. 이러한 기록은 아주 잠깐 사이에 일시적으로 폐사된 상황을 묘사했을 가능성은 남았다.

조선 후기인 1802년(순조 2)에 연곡사(鷲谷寺)에서 생산된 백지(白紙)를 왕실 재정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인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켰다.⁸⁵⁾

84) 『鳳城誌』, 佛宇條(1800년경) / 「湖南邑誌」 제3책, 1872년경, 求禮 佛宇條.

85) 순조실록[순조 2년 임술(1802) 9월 12일(경진)].

<비국에서 장용영의 첩파·호조 등의 노비공 급대에 관해 아뢰다(備局言: "壯勇營撤罷後, 錢、

조선 후기인 1859년 3월 25일에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봉상시(奉常寺)⁸⁶⁾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구례현(求禮縣) 연곡사(鰲谷寺)는 울목 봉산(栗木封山) : 봉산은 나라에서 필요한 목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보호 육성하는 산림으로 울목 봉산은 밤나무의 벌채를 금지한 것임)인데 갑인년(甲寅年 : 철종 5, 1854) 수재(水災) 뒤에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명첩(空名帖)을 4백 장에 한하여 특별히 처분하여 지금 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공명첩은 빈민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법이지만 근래에 사찰의 수리를 간혹 특별히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절은 봉산으로 이곳을 수호하는 차원(差員)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전적으로 이 절에 책임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공명첩 1백 50장, 승첩(僧帖) 50장을 성급(成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⁸⁷⁾

19세기 후반에도 연곡사는 여전히 ‘栗木封山之所’였다. 구한말인 1895년경에도 연곡사는 여전히 왕가의 신주목을 봉납하는 울목봉산지소였는데⁸⁸⁾ 밤나무 남용으로 절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견디다 못한 스님들이 승려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결국 절이 폐망하게 되었다.⁸⁹⁾

「智異山 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밤나무 남용으로 폐사되는 구체적인 시기와 원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다.

“고종황제(高宗皇帝) 어위중(御位中)⁹⁰⁾ 밤나무 남용(濫用)으로써 연곡사가 망하기에 이르렀다. 연곡사 스님들이 밤나무로 배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부정(不淨)한 곳이 된 까닭에 인근 민중(民衆)들이 시끄럽게 난동을 지어 관이 미쳤다. 연곡사 재산을 탕진한 스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결국 절이 망했다. 본래 밤나무 봉산

穀、木、布、屯土、軍器、公廩、區處移屬、軍兵接濟、戶曹・內司各衙門奴真給代措處之方、各具別單以入> 비극에서 말하기를 “장용영(壯勇營)을 첩파한 뒤에 돈·곡식·무명·베, 둔토(屯土)·군기(軍器)·공해(公廩)를 구처하여 이속(移屬)하고 군병(軍兵)을 접제(接濟)하는 것과 호조·내수사 각 아문(衙門)의 노비공(奴婢貢) 급대(給代)를 조처하는 방도를 각각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올립니다.”하였다. 【...봉산·황주·웅진·안주·박천·장흥·정주(定州)·진위(振威)·고양·김포·지평(砥平)·양근(陽根)·가평의 둔토와 전곶(箭串)의 내전세(萊田稅), 흥덕동(興德洞)의 포전세(圃田稅), 도저동(桃渚洞)의 포전세, 연곡사(鰲谷寺) 백지(白紙)는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키고(鰲谷寺白紙、屬之內司)…】

86) 조선시대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의론하여 정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87) 領議政 鄭元容이 입시하여 改量 비용을 捐廩하여 自備한 豐川府使 魚在淵의 防禦 履歷을 허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南城分奉常寺, 節財用, 北漢城餉, 文官製述, 嶺陲斫伐之漢嚴繩, 賊墨藩臣拿問) 국역비변사등록 246책(철종 10년, 1859년 3월 25일)

88) 「湖南邑誌」 제3책, 1872년경, 求禮 佛字條.

89) 鄭秉憲, 1924, 「附 鰲谷寺事蹟」,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90) 조선후기 제26대(재위: 1863~1907) 왕.

(封山: 나무 베는 것을 나라에서 금함) 재(材)로 운영해 온 것은 수백년간인데 인근 주민들이 호군(戶軍)으로 고피(苦疲: 괴롭고 피곤함)한 까닭에 승려들이 절에서 흩어져 패인(敗因)이 된다. 절을 수호하려면⁹¹⁾ 마땅히 계율은 지켜야 한다.”

남벌한 밤나무로 배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절집의 재산을 탕진하는 승려들의 부정을 기록로 호군의 고역을 참다못한 인근 주민들이 관아의 힘이 약해지는 을미사변(1895년 8월 20일) 이후에 난동을 부리자 하나둘씩 절을 떠나 폐사가 되었다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처럼 관리의 침탈에서 벗어나게 된 것까지는 좋았다. 위세가 오를 때로 오른 승려들이 섬진강을 배경으로 무분별하게 밤나무를 남벌하여 돈벌이 목적으로 배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게 되자 급기야는 왕가에 신주목을 봉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후한을 두려워한 나머지 절을 떠난 것이 아닐까?

이 당시의 폐사에 대해서 김창호가 쓴 1949년 <동광신문> 답사기에는 꽤 흥미로운 내용이 전한다.

“傳說에 依하면 洞里 사람들의 先代가 寺奴로 色여있으므로 그 후예들이 봉건적 수치라고 憤慨한 나머지 드디어 破壞하고 말았다는데 이 碑石(현각선사비)을 없이자는 相議를하였던바 그가三日동안이나울어 그振動하는소리가 앞산에까지울리었다는 傳說이있다”⁹²⁾

동리 사람들이 선대가 사노로 있으므로 그 후예들이 봉건적 수치라고 분개하여(현각선사탑비를) 파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전설로 소개한다. 「鳳城誌」(1800년경)의 “지금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는 기록은 양반들의 관점에서 차마 사노의 후예들에 의한 파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 단순화시킨 표현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인 19세기 중·후반에 영산경순(影山敬淳)⁹³⁾과 더불어 당대의 뛰어난

91) 수호하려면

92) 曉泉 金昌浩, 1949. 7. 10(3면), <내고장의자랑! 옛美術을 차저서, 感懷의 古僧都 燕谷寺篇>, 東光新聞 第965號(6권), 東光新聞社(광주).

93) 경순(敬淳): 미상~1883년, 조선후기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등에서 선을 지도한 승려. 어려서 출가하여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禪雲寺)에서 삭발하였다. 선방에서 20여 년 동안 참선 공부로 선의 깊은 뜻을 체득하여, 선운사의 뛰어난 선지식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 뒤 통도사·송광사·해인사 등지에 머물면서 선을 지도하였다. 만년에는 보살행을 닦아 추위에 떠는 이에게는 옷을 벗어주고 배고픈 이에게는 동냥하여 공양하였으며, 두타행(頭陀行)을 철저히 닦고 일일 일식의 계를 지켰다.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어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었다. “천하는

선지식으로 불린 허주덕진[虛舟德眞, 1806년~1888년]⁹⁴⁾의 구도 행각은 계속되었는데 수행처로 화엄사 구층암과 함께 燕谷寺 등지로 주석처를 옮기며 수행을 계속하지 않았다고 한다.⁹⁵⁾

또한 이 무렵 조선조 고종시대 동리산(곡성) 미타암의 주석을 지낸 선승 취은혜오[取隱慧悟, 1815년(순조 16)~1899년(광무 3)]의 수행처였다. 순천 송광사의 승려 원암득원(圓庵得圓, ?~ 1885)⁹⁶⁾은 해남 대흥사의 조실이었던 도반 취운혜오(翠雲慧悟, 1866년~1894년)⁹⁷⁾와 함께 만년에 연곡사 龍樹庵⁹⁸⁾에서 하루 한 끼만 먹으

태평한 봄날이요, 모든 곳에 하나의 일도 없으니, 내가 아니라면 누가 이룰 수 있는가. 산 늘로 아침에 밥을 짓고, 담쟁이 넝쿨 사이로 보이는 달로 밤에 등불을 삼으니,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네.” 당시 덕진(德眞)과 더불어 뛰어난 선지식으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전라남도 곡성군 관음사(觀音寺)에서 앉은 채 입적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익, 1996년)

- 94) 德眞(1806년~1888년): 호는 허주(虛舟). 어려서 조계산 송광사(松廣寺)에 들어가 삭발하고 홀로 선정(禪定)을 닦으며 도학을 성취하였다. 주지직을 위임하면 부득이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언제나 조용한 곳을 찾아 수도하기를 좋아하였다. 송광사·선암사(仙巖寺)·칠불암(七佛庵)·백양사(白羊寺)·물외암(物外庵)과 내장산 원적암(圓寂庵), 가지산(伽智山) 내원암(內院庵) 등 여러 사찰을 순방하며 수도하였다. 이름이 널리 퍼지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불러 국가를 위하여 철원 보개산(寶蓋山) 지장암(地藏庵)과 고산(高山) 운문사(雲門寺)에서 기원하게 하였다. 그의 도성(道聲)이 알려지니 수많은 학인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들었고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랐다. 칭찬과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 정진하고 제자를 키워 경순(敬淳)과 더불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식으로 불렸다. 나이 83세로 입적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익, 1996년)

- 95) “지리산 燕谷寺에는 선객들 사이에 꽤 알려진 토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文殊窟이고 또 다른 하나는 龍樹窟이다. 그런데 문수굴에는 정진하는 선객이 있었으나 용수굴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다. 원암스님은 자신의 수행에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여 용수굴로 들어가 흘러가는 구름을 벗 삼고 하루 한 끼 식사로 주린 배를 달래며 수년 동안 용맹정진하였다. ...생략... 하루는 이상스런 모습을 한 두 명의 내방객이 용수굴로 원암스님을 찾아와 문밖에 외치는 것이었다. “스님을 모시러 왔으니 길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하고는 문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렀다. 원암스님은 이일이 있는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한 표정으로 입적하니 을유년(1885) 12월의 일이었다.”『虛舟宗師傳』, 1894년(탈고), 1957년(간행), 『東師列傳』. 범해 撰·김윤세 譯, 1994, 『(완역본)동사열전 :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336쪽.

- 96) 득원(得圓): 조선 후기 지리산 용수암에서 수년간 1일 1식으로 수행한 승려. 호는 원암(圓庵). 가계 및 출신지는 전하지 않는다. 조계산에 있는 송광사(松廣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언제나 번잡한 곳을 피하여 고요한 곳을 찾아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으면서 수도하였다. 만년에는 지리산의 연곡사(燕谷寺)에 딸린 용수암(龍樹庵)에서 도반 혜오(慧悟)와 함께 1일 1식하면서 수년 동안 수행하였다. 하루는 두 손님이 문밖에 와서 “스님을 맞이하려고 왔으니 빨리 준비 하십시오.” 하자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익, 1996년)

- 97) 혜오(慧悟): 개항기 대흥사 응허의 제자가 되어 법맥을 계승한 승려. 속성은 백씨(白氏). 호는 취운(翠雲). 전라남도 영암 출신. 어려서 해남 두륜산 대흥사(大興寺)에서 응허(應虛)를 은사로 하여 삭발하였고, 복암(福菴)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각안(覺岸)으로부터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를 받았고, 은사인 응허의 법을 이었다. 출가한 뒤 내외의 전적을 배워 교리에 능통

면서 수년 동안 수행하였다고 한다.⁹⁹⁾

5. 구한말 고광순 의병활동과 근대기 중수

구한말에 전남 구례 출신의 구한말 憂國詩人이었던 梅泉 黃玪(1855~1910)은 화엄사·연곡사·천은사 등을 자주 방문하였다. <燕谷寺>는 그의 시집 丁丑稿에 수록되어 있어 1877년 그의 나이 23세 때 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佛堂에 탕화한 폭이 없을 정도로 퇴락해 있고 탑만 하나 덩그러니 구름에 기대 서 있는 연곡사의 당시 모습을 그려내었다.¹⁰⁰⁾

寺古佛堂無畫圖 오래된 절 불당에 탕화는 한 점도 없고
 惟存一塔倚雲孤 탑 하나만 외로이 구름 의지해 서 있네

하였다. 그 뒤 대흥사의 범해(梵海), 미황사(美黃寺)의 원해(圓海), 선암사(仙巖寺)의 경운(擎雲) 등을 찾아다니며 선을 배웠다. 또한, 지리산 연곡사(燕谷寺)의 용수암(龍樹庵) 토굴에서 득원(得圓)과 함께 수년 동안 수행하였다. 개당(開堂)을 하여 학인을 지도할 때 설법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부처의 일대교설을 말함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었다. 승속불이(僧俗不二)의 이치를 실천하여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하였으며, 또한 시문과 필법에서도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문신(文信)의 11대 법손이고, 혜장(惠藏)의 7대 법손, 혜집(惠楫)의 5대 법손, 경은(敬恩)의 법손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찬우, 1997년)

- 98) 경허 스님(1849~1912년)의 시문집인 ‘경허집’에 용수암에서 수행을 한 승려 취은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取隱和尚行狀 (취은화상행장): 화상의 휘는 민욱(旻旭)이요 법호는 취은(取隱)이며 속성은 최씨니 해주(海州)후인이다. 가경(嘉慶) 20년 을해 경상도 봉화땅에 살기 시작하다가 집 짓고 살기는 그 이듬해 9월이었다.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영리하며 노숙한 풍모가 었었다. 14세에 홀연히 티끌세상을 벗어날 뜻이 있어서 태백산 각화사 진주(秦珠)장로에게 귀의하여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다. 그 뒤 68세 되던 계미년에 반야봉 아래 용수굴(龍樹窟)에 살기 10년을 흠뻑이처럼 앉아 지내니 온갖 생각이 찬 재처럼 식었고 도의 지혜는 성성해서 홀연히 돈오한 곳이 있었다. ...중략...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안다” 한 것이 이것이다. ...중략... 79세 되던 갑오년 봄에 동리산 미타암에 주석(住錫)하며 선회(禪會)를 설치하여 현풍(玄風)을 떨치니 탁월한 행리는 늙어서도 게으르지 않았다. 4년 뒤 정유년 마지막 보낼 곳을 가리어 명적난야(明寂蘭若)에 편안히 지낸지 3년 되던 기해년 정월 초 이레날 가벼운 병세를 보이더니 14일날 신시에 입멸(入滅)하였다.(鏡虛, 釋明正 譯註 慶南梁山通度寺極樂禪院)

한편 불가에 회자되는 근세의 자료들에서는 취은스님의 용수굴 수행기간은 1883년(고종 20)년부터 이후 10년 동안이며, 반야봉(般若峯) 용수굴(龍樹窟)로 은거하여 좌선한 뒤 대오(大悟)하였으며, 1893년 봄 동리산 미타암(彌陀庵)에서 선회(禪會)를 열어서 선풍을 크게 떨쳤다고 전한다.

- 99) 「圓庵禪伯傳」, 1894년(탈고), 1957년(간행), 『東師列傳』.
 범해 撰·김운세 譯, 1994, 『(완역본)동사열전 :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341쪽.

- 100) 黃玪, 梅泉集 卷1, <燕谷寺>, 黃玪全集 上, 아세아문화사, 39쪽.

曉天星漢政搖落 새벽하늘 은하수는 흔들려 쏟아질 듯하고
 空谷水風相激呼 빈 골짜기 물바람은 서로 부딪쳐 요란스러라
 村近竹間通吠犬 인근 마을 대숲에선 개 짖는 소리 들려오고
 齋休殿角集神鳥 재 마친 전각 모서리엔 신오가 날아드누나
 萬株洞栗誰栽得 골짜기의 수많은 밤나무는 그 누가 심었던고
 樹樹青黃境絕殊 나무마다 푸르고 누레라 뛰어난 승경일세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자 각지에서 항일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호남의병의 활동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인 담양 출신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다.¹⁰¹⁾

그렇게 근근이 명맥을 이어 온 연곡사는 근세에 이르러 또 한 번 전소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고 담양 출신 의병장 고광순(高光詢)의 순절된 곳이기도 하다. 고광순은 임진왜란의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직계후손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

101) 고광순(高光詢): 본관은 장흥(長興). 아명(兒名)은 광욱(光旭), 일명 광순(光詢·光詢). 친아버지는 고정상(高鼎相)이다. 사위는 항일 투사로 유명한 기산도(奇山度)이다.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났다. 의병장으로 진안 이산묘의 영광사에 배향된 인물이다. 1895년(고종 32)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일으키자 고광순은 전라도 각 읍에 격문을 보내고,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과 의병을 모집함과 동시에 좌도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다. 나주를 본영으로 하여 의병을 모집했지만 일본군이 나주로 집결하기에 다시 본진을 광주로 옮겼다. 이후 국모 시해의 원수를 갚기 위해 북상하던 중 정부가 파견한 선유사의 해산 권고에 따라 자진 해산하고 말았다. 1905년(광무 9)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강탈당하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체결되자 이에 저항하고자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듣고 고광순은 고제량(高濟亮)과 함께 최익현의 의병에 합류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최익현은 패하고 서울로 압송된 터라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재기를 노리던 고광순은 1907년 1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저산(猪山)의 전주 이씨 제각에서 고제량·고광훈(高光薰)·고광채(高光彩) 등의 족친들 및 윤영기(尹永淇)·박기덕(朴基德) 등과 함께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1907년 2월 남원 의진을 이끌던 양한규(梁漢圭)로부터 남원성 탈환을 위한 연합작전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호응한 고광순은 휘하 의병들을 이끌고 남원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양한규가 진위대와의 접전 중 전사하면서 남원 의진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광순 휘하의 의병 부대는 할 수 없이 비흥치(飛鴻峙)를 넘어 담양군 창평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장성의 기삼연(奇參衍)·능주의 양희일(梁會一) 등과 연합하여 4월 화순읍을 점령함으로써 주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구례 연곡사(燕谷寺)와 지리산 문수암(文殊庵) 일대를 거점으로 군사훈련 및 군량을 보충하면서 ‘불원복(不遠復)’이라는 깃발을 제작하여 사기를 진작하였다. 그 후 지리산을 거점으로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동년 10월 전개된 일제 군경의 대대적인 의병 토벌 작전으로 인해 연곡사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묘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월봉산 기슭에 있다. 1947년 진안 이산묘 영광사에 배향되었다. 1958년 전사한 연곡사 인근에 순절비가 건립되었으며, 1969년에는 순절을 기리기 위해 포의사(褒義祠)가 세워졌다.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디지털진안문화대전, 오경택)

사변이 일어나자 “국사를 그르친 괴수를 죽여 국법을 밝히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리고 의병활동을 시작한다. 1895년 을미의병 이후 1907년까지 고광순은 10년 넘도록 총을 들었다. 호남일대에서 10여 년간 분투한 고광순을 두고 일제조차 ‘호남의병의 선구자’라 불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일제 군경의 위협이 커지게 되자 고광순은 의병활동의 전략을 크게 바꾸었다. 지리산 피아골로 들어와 장기지속적인 항전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1907년 8월 26일 지리산 피아골 연곡사에서 본영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달 26일 화개에서 왜병 10여 명, 같은 달 27일에는 왜병 수명을 죽였다. 9월 6일에는 왜병 수십 명이 의병의 소재를 파악하느라고 연곡사에 들어오는 것을 의병 50여 명을 인솔하여 적병 10여 명을 죽이자 왜병이 모두 도주하였다.¹⁰²⁾

1907년 9월에 전라도에서 일어난 金東植·高光詢의 의병 300여 명이 이달에 경상남도으로 이동하여 居昌·安義 부근에서 맹렬히 활동하였는바 이들은 지리산 부근의 七佛寺·鰲谷寺·文殊洞을 근거로 하고 10월 4일에는 하동경무서를 습격하는 등 활동이 극성하므로 이날(10월 17일) 새벽 일본군이 鰲谷寺를 포위 공격하여 義兵將 高光詢 등 數十名을 死傷케 하고 鰲谷寺를 소각하다.¹⁰³⁾

1907년 10월 17일 장기 항전을 위해 전남 구례 연곡사에 마련한 은신처가 발각됐다. 일본군 보병 12사단 14연대와 진해만 요새 포병대 연합부대가 연곡사에 포탄을 퍼부었다. 오전 6시 30분 개시된 이 전투에서 고광순 부대는 14명이 전사하고 20명이 부상했다.(1907년 10월 17일 <일본군 보병 14연대 진중일지>, 토지주택박물관) 지리산에 흩어져 있던 부대원 300여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고광순도 죽었다. 고광순과 한집안인 고제량도 죽었다. 집안사람인 고광수·고광문·고광훈·고광채는 항일 투쟁을 이어갔다. 사위 기산도는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연곡사를 포위한 일제 군경의 공격을 받고 고광순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만다. 일제는 퇴각하면서 연곡사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며칠이 지나 고광순의 시신을 수습하여 임시로 분봉을 만들었다. 다음날 당시의 구국시인 梅泉 黃玹(1855~1910)이 피아골 연곡사를 찾아 ‘鰲谷戰場 弔高義兵將光詢’이란 애도의 추모시를 남긴다.

102)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6쪽.

103) 『朝鮮獨立運動』I, 民族主義運動篇 第1編 義兵運動 附1 朝鮮暴徒討伐誌 第4編 第3章 其3[隆熙 元年, 丁未(1907년, 淸 德宗 光緒 33年, 日本 明治 40年) 10月 17日(木)] 고광순의 순절한 날자는 기록마다 다르다. 노산 이은상의 1938년 <지리산탐험기>에 의하면 9월 11일의 밤. 그는 이곳에서 비탄(飛彈) 아래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고 한다.

千峯鷺谷鬱蒼蒼 연곡의 수많은 봉우리 울창하기 그지없네.
 小劫虫沙祭國殤 나라 위해 한평생 숨어 싸우다 목숨을 바쳤도다
 戰馬散從禾攏臥 전마(戰馬)는 흩어져 논두렁에 누워 있고
 神鳥齊下樹陰翔 까마귀떼만이 나무 그늘에 날아와 앉는구나
 我曹文字終安用 나같이 글만 아는 선비 무엇에 쓸 것인가
 名祖家孫不可當 이름난 가문의 명성 따를 길 없네
 獨向西風彈熱淚 홀로 서풍을 향해 뜨거운 눈물 흘리니
 新墳突兀菊花傍 새 무덤이 국화 옆에 우뚝 솟았음이라

그가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례에 살던 매천 황현이 한걸음에 달려와 봉분을 만들어 줬다. 황현은 이전에 고광순이 사람을 보내 ‘격문을 써달라’는 청을 완곡히 거절한 적이 있었다.(황현, ‘고광순 약전’, 녹천유고) 그제 마음에 걸렸던 이 선비가 시를 쓴다. “나같이 글만 아는 선비 무엇에 쓸 것인가”라며 충을 든 선비 앞에서 충을 들지 못한 자신을 한탄했다. “새 무덤이 국화 옆에 우뚝 솟았음이라”라며 고광순의 순절을 기렸다. 황현은 3년 뒤 자결했다. 1958년 구례군민은 연곡사에 순절처에 고광순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2019년 11월에 성역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광순 의병은 高濟亮·高光秀·朴贊德·高光照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승리하였으나 불행하게 일병의 야간기습을 받아 패전하고 고광순은 10월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부근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연곡사도 의병 활동의 근거지란 이유로 일본군에게 방화를 당했다. 이 무렵 연곡사를 포함한 지리산 일대의 사찰들은 항일의병 활동의 독립기지가 되어 항일 독립 운동사의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¹⁰⁴⁾

「智異山 鷺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고광순의 의병의 주둔으로 불타는 상황과 당시 건물을 자세히 서술했다.

“용희(隆熙) 원년(元年) 정미(丁未) 서기 1907년 9월 9일 고광순(高光洵)으로써 진(陣)을 치고 거주하였던 까닭에 절이 불타고 전해내려오던 유물들이 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건물은 법당(法堂)이 10채, 왕전(王殿), 천왕문(天王門), 노전(爐殿), 승당(僧堂), 선당(禪堂), 길상암(吉祥庵)이었다.”

여기서 법당은 10채와 뒤이어 나오는 왕전 이하는 법당 성격이 아니어서 전혀

104) 이계표,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7쪽.

별개의 건물로 해석된다. 이때 연곡사의 15채 건물과 인접한 길상암이 소실된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연곡사(鵲谷寺)에서 환월(幻月)¹⁰⁵과 그의 제자 경운(擎雲)¹⁰⁶이 주석하였다. 후에 선암사 대승강원(大乘講院)에서 강의하였다. 그는 금봉병연(錦峰秉演)의 스승이기도 하다.

「智異山 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박승봉에 의한 중창을 서술했다.

“1924년에는 朴勝奉(생물연대 미상, 불교신자로 사회사업가임. 법명은 觀音)이 절 경내에 700원을 들여 尋牛庵을 창건했다.¹⁰⁷ 쌍계사 손범성(孫範城) 스님이 절을 운영했다.”¹⁰⁸

노산 이은상의 <지리산탐험기>에 의하면 1938년 지리산을 탐험하며 피아골에

105) 환월[幻月, 1819년~1881년]: 조선후기 선암사 영숙의 제자로 계봉의 법맥을 계승한 승려. 성은 강씨(姜氏). 전라남도 순천 출신. 어머니는 완산이씨(完山李氏)이다. 어머니가 달을 품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1832년(순조 32) 아버지가 모두 죽자 선암사(仙巖寺)로 출가하여 영숙(永淑)의 제자가 되었고, 계봉선사(溪峰禪師)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으며, 침명화상(枕冥和尚)으로부터 불경을 배우고 선(禪)을 지도받았다. 1837년(헌종 3) 계봉선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개당(開幢)하였고, 이때부터 많은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언제나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여 승려들의 의지처가 되었다. 또한 구월산(九月山) 패엽사(貝葉寺)에 있을 때는 3년 동안 『법화경』을 연구하여 통달하였다. 그 뒤 하루 종일 『법화경』을 강의하여도 그 해박한 언변에는 막힘이 없었고 경의 뜻을 언제나 명확하게 해석하였다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선근, 1997년)

106) 경운[擎雲, 1852년~1936년]: 강백(講伯)·사경사(寫經師). 성은 김씨(金氏). 경운은 법명이다. 경상남도 웅천(熊川)에서 태어나 17세에 출가하여, 구례군 연곡사(鵲谷寺) 환월(幻月)의 제자가 되었다. 전라남도 승주선암사(仙巖寺)의 대승강원(大乘講院)에서 불경을 공부하였으며, 뒤에는 직접 강의를 담당하여 선암사를 당대 강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순천의 환산정(喚山亭)을 매입하여 새로운 포교당을 설립하고 포교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1910년 서울에서 중앙포교당이 설립되자 포교당의 교화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1911년 조선불교임제종운동(朝鮮佛教臨濟宗運動)이 일어났을 때 임시 관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17년 조선불교선교양종교무원(朝鮮佛教禪敎兩宗敎務院)이 창립되었을 때 최고직인 교정(敎正)에 추대되었다. 또한 그는 근대의 대표적인 사경승으로, 1880년 명성황후(明成皇后)의 발원(發願)으로 『금자법화경(金字法華經)』을 서사(書寫)하였다. 이때 쓴 『금자법화경』 한질은 양산 통도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필적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896년부터는 선암사에서 『화엄경』의 사경을 시작하여 6년 만에 완성하였는데, 『화엄경』의 일행 일자를 끝낼 때마다 일배(一拜)를 하면서 서사하였다. 평생 동안 후학을 길러내고 불사를 행하다가 선암사에서 85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위석, 1996년)

107) 「한국불교인명 전자사전」(불교방송조사자료부).

108) 김진덕·김선·김경식·양종현, 2013,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재)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연곡사, 27쪽.

서 연곡사로 가는 길에 매미가 울었다며 시를 읊었다.

〈19. 燕谷洞의 매미소리〉

어디에선지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벌써 저 혼자 가을을 즐기나 보다. 제비를 봄의 선구자라 한다면, 매미는 가을의 전창자(前唱者)다.

높으나 높은 나무에 이슬을 받고 앉아, 세상은 어지러운데 저 혼자 태평곡을 부르는 매미 소리.

이제 우리도 어지간히 내려왔나 보다. 매미 소리에 인가가 멀지 않음을 깨닫자 문득 보니 언덕 위에 산촌(山村) 두어 집. 여기가 직전 계곡이 끝나는 직동(稷洞). 지도를 펴 보니 5백 미터다. 어허, 우리가 저 반야봉에서 1천 2백미터나 내려온 것이다.

여기를 왜 ‘피앗골’이라 하였는지. 옛날엔 피 농사를 하였던 것이리라. 그러나 오늘날은 이 화전민들이 피 대신 감자를 심고 담배를 심었다. 감자는 먹고, 담배는 팔고, 산중에서 살다가 산중에서 죽는 것이다.

매미 소리는 끊이지 아니한다. 가련한 인생의 고난일생(苦難一生)을 비웃는 듯, 매미 소리는 끊이지 아니한다.

여기서부터 10리 연곡동(燕谷洞). 동하(洞下)의 연곡사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한다.

석양 그늘이 동부(洞府)에 그득히 깔려 온다. 어쩐지 매미 소리조차 우리 걸음을 따라 급히 우는 듯한데, 나는 이 매미 소리와 같이 걸어 연곡동을 내려오며 수창(酬唱)·시가(詩歌)를 서로 주고받으며 읊음 두어 수(首)를 구음(口吟)하야, 석양 산로의 즐거움을 도우련다.

매미 급한 읊음
내 걸음을 맞춤인가
허허 저 나그네
당신이 뉘신지 내가 아오
우리는 석양이 넘기로
아까워서 그러하오.

나그네 흥난 걸음
내 노래 탓인가요
허허 저 매미

네가 뉘 줄을 내가 아나
오늘은 천산만수가
내것이라 그리노라.

희제(戲題) 두어 수를 읊는 동안에 석양은 재를 넘고 우리는 연곡사의 경내로 들어섰다.

바른편으로는 계곡이 그대로 뚫려 내리고, 시냇가에 논을 이루어 놓은 사문(寺門) 앞에 다다르니 명성은 고찰이요, 당우(堂宇)는 신축이라 얼마쯤 낙심되지 않는 바도 아니지마는, 그러나 여기 있는 새 건축을 통하여 역사의 참적(慘跡)을 헤아릴 수 있음에도 풍치 없는 새 당우도 비장(悲愴)한 생각을 자아내기에 족하다.

절의 초창(初創)은 저 화엄사의 초창자인 연기의 손에서 되었다 전하고, 또 승려들 사이에 서로 전하되 특히 청허서산대사의 낙발(落髮)이 이 절에서 된 듯하다 하여 그로써 이 절의 큰 자랑을 삼는다고 하지만, 서산이 십오세에 지리산으로 들어와 송인장로의 권유를 받고 영관선사의 가르침을 입어 출가하게 된 것은 사실이로되, 그가 “홀문사우제창외(忽聞社宇啼窓外), 만안춘산진고향(滿眼春山盡故鄉)” [소적새 소리 듣고 창밖을 보니, 봄빛 가득한 저 동산이 내 고향 같구나]의 구(句)를 음(吟)하고서 은도(銀刀)를 쥐고 자단청발(自斷靑髮)한 곳이 꼭 여기라고 할 증고(證考)는 없다.

뿐만 아니라 <불조원류(佛祖源流)>에 “입지리산의송인대사락발어원통암(入智異山依崇仁大師落髮於圓通庵, 즉시의신남록(即是義信南麓)”이라 한 것이 있음을 보아, 서산대사를 연곡사에 관계하여 말함은 오히려 부당한 듯하다. 다만 그가 연곡동으로 다녔다는 기록은 있으며(淸虛集), 이 절에도 머물렀던 일은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에 대한 추모는 이 산중 다른 곳에 가서 말할 데가 있는 만큼, 그를 연곡에서 내세울 것은 없다고 본다.

나는 오히려 지금 여기 씌어진 이 연곡사의 신축된 당우 앞에서 누구보다도 삼십년 전 이 절에서 최후를 마치고, 또 절마저 그로 인하여 화마(火魔) 속에 들게 된 고광순(高光洵) 대장을 생각게 되는 것이다.

고광순(1848~1907)은 충렬공 제봉(霽峰)[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고경명을 말함]의 후손으로, 전남 창평 유천에서 생을 얻은 조선 최근세사상(最近世史上)의 한 페이지를 차지한 사람이다.

전통적 수구사상 속에서 깨지 못하던 동방의 은사국(隱士國)도 감오, 을미, 병신 년간에 큰 갓 쓰고 도포 입은 채 나라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학자님네들을 내고

야 말았다.

그가 바로 그들 중의 일인으로서 남도에 비격(飛檄)하여 사중(士衆)을 모아 여러 곳에서 충돌하고 마침내 정미년 8월에 이 연곡사로 들어와 책원지(策源地)[전선의 작전부대에 대해 보급, 정비 등의 후방지원을 하는 병참기지]로 정하고 활약하려 하였음은 여기가 지세만이 험준할 뿐 아니라 영호(嶺湖)의 인후(咽喉)가 되는 요새지대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월 11일의 밤. 그는 이곳에서 비탄(飛彈) 아래 최후를 마치고 말았으며, 연곡사의 웅전거우(雄殿巨宇)도 그날 밤에 재 되고 말아 오늘은 촌가 같은 이러한 몰풍경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20. 燕谷寺의 밤비〉

집은 있으나 폐허로만 보이는 연곡사에 해가 저문다. 수십 년 된 당우(堂宇)야 볼 것이 없고, 60리 산길에 지친 다리는 피로하여도, 국보 많기로 이름난 연곡사라 그냥 머물 수가 있을까 보나.

막대를 세운 채 다시 끌고 절 앞, 절 뒤로 돌아다니며 탑과 부도를 순례하여 이 절의 옛 면목을 찾아보리라.

연곡사의 지정된 국보들은, 삼층석탑, 현각선사탑비, 서부도, 북부도, 동부도, 동부도비(東浮屠碑)이다. 이 여섯 국보를 일일이 순례하며 신라의 예술과 문화에 다시금 탄양(嘆仰)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삼층석탑은 2층의 기단 위에 세운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측되는 것이니, 각층 입석이 파손된 채로 그 경쾌한 묘취(妙趣)로 남의 발을 세우고, 그리고 대웅전 서쪽 발 가운데의 현각비탑은 비신(碑身)을 잃어버려 이수(螭首)[건축물이나 공예품에서 뿔 없는 용의 모양을 새긴 형상. 비석 머리 등에 쓰임], 귀부(龜趺)[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만 남았어도 운룡부조(雲龍浮彫)가 남의 눈을 머물게 한다.

그리고 서부도, 북부도도 다 동부도에 형상 비슷하나 그 중에 특기할 자는 동부도라 하겠는데, 이 동부도는 방형(方形)의 지복석 위에 팔각이접(八角二接)의 기대를 놓고, 각 단에 운룡과 사자를 새겼으며, 그 위의 각 협간(狹間)에 동물 무늬를 조각한 팔각의 주형석(柱形石)을 놓은 다음, 이중양련변(二重仰蓮瓣)을 새긴 중대(中臺)를 얹었다.



〈1938년 노산 이은상은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제3차 산악순례로 지리산을 오른다. 연곡사 동부도와 동부도비 앞에서 일제히 멈췄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개나리 밭집도 없다는 것은 이들의 개인짐과 텐트 등 단체 짐은 가이드와 포터들이 지고 갔기 때문이다. 피아골 연곡사에서조차 역시 이들은 배낭이 없다.〉

그리고 중대 위에는 구란형급조문(勾欄形及鳥文)을 새긴 또 일대(一臺)를 놓고 팔각의 탑신을 안치하였는데 개석(蓋石)은 팔각모형(八角模形)으로 이마에는 사면에 날개 펼친 서조(瑞鳥)[봉황]를 각출(刻出)한 것과 연화무늬 조각한 돌을 몇 단이나 얹었다.

그 조각의 정묘함과 형태의 안정함이 실로 이런 종류의 부도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특작(特作)이라 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곁에 있는 비(碑)는 비신을 잃어 가고(可考)[참고할 만함]할 길이 없으나, 동부도의 사연을 적었던 비일 것이 분명하다. 여기 이 동부도를 이르되 ‘연기원탑(緣起願塔)’이라 불려오는 모양이매, 만일 이 비신을 얻어 읽을 수가 있다면 혹 연기에 관계된 귀중한 사료(史料)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이수귀부만 하여도, 귀부는 귀갑(龜甲)에 양익(兩翼)을 지고 등 위에 구름무늬 조각의 비좌(碑座)를 만든 것이라, 조선에 있어서 희유(稀有)의 형식임을 보는 점에서 어떻게나 주의(注意)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같이 경내를 산책하는 동안에 문득 보니 장명등(長明燈)에 불이 켜 있다.

金昌浩, 感懷의 古僧都 燕谷寺篇, 東光新聞 기사(1949. 7. 10.)

목소리로 도담세화(道談世話)를 주고 받느라 밤이 깊은 줄을 알지 못한다.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종현선사와 현주화상의 중건을 서술·추기했다.

“용희4년¹⁰⁹⁾ 소요대사 문하의 손범성당(孫梵城堂) 종현선사(宗炫禪師) 소란(小蘭)을 중건했다. 화엄사 주지 포월선사(抱月禪師)와 더불어 진진응(陳震應) 종사(宗師)가 부탁한 까닭이다.” “단기 4261년 서기 1928년 철운당(鐵雲堂) 현주화상(玄周和尚)이 대웅전을 중건했다.”

1949년 <동광신문>에 1959년에 전남대 박물관 초대관장을 지내게 되는 김창호의 답사 기사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

“傳說에 依하면 洞里 사람들의 先代가 寺奴로 색여있으므로 그 후예들이 봉건적 수치라고 憤慨한 나머지 드디어 破壞하고 말았는데 이 碑石을 없이자는 相議를하였던바 그가三日동안이나올어 그振動하는소리가 앞山에까지울리었다는 傳說이었다. 그런데十餘年前 日本考古學者小川¹¹⁰⁾, 藤島¹¹¹⁾兩人이 찾아와 이를 三百萬圓의評價를하여 京都로올마갈피를하였다는데 함마트면倭놈들에게빼앗길변하였다. 이절은 新羅末道선大師가重修하였던바 ... 乙酉年義兵大將 高光洵氏 淳昌人 가駐屯中倭兵이 來襲하여 無慘히도 六百將兵이 쓰러지고 高樓巨閣은 烏有로 돌아가 一時荒廢하였던바 壬子年에 이르러 洞里有志孫範城氏로부터뜻한바있어 再建하였다 高麗光宗때 全鮮僧侶를모아 僧科舉行하였으므로 이곳을僧都地라하였다(高麗學士王融贊文輔國張信元書云) ① 三層石塔: ‘相輪도 缺如’ ② 현각선사탑비: 절 뒤 밭가에 있는데... 傳說에 依하면 洞里 사람들의 先代가 寺奴로 色여있으므로 그 후예들이 봉건적 수치라고 憤慨한 나머지 드디어 破壞하고 말았는데 이 碑石을 없이자는 相議를하였던바 그가三日동안이나올어 그振動하는소리가 앞山에까지울리었다는 傳說이었다. 그런데十餘年前 日本考古學者小川, 藤島兩人이 찾아와 이를 三百萬圓의評價를하여 京都로올마갈피를하였다는데 함마트면倭놈들에게빼앗길변하였다. ③ 東浮屠: 新羅末 眞興王一三七十年前 道선國師塔이다. ④ 東浮屠碑: 이碑亦是 道선國師 事蹟碑라고한다. ⑤ 北浮屠: (道선國師慈母塔)”

※ 내용이 길어 중요한 정보만 발췌해서 실었다.¹¹²⁾

109) 1910년.

110)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총독부 고적 조사과 기수.

111)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동경제국대 건축과 교수.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인 (현각선사탑비)의 파괴 과정에 대해 사노 후에들의 분개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기술한 점이 어느 다른 기록 보다 구체적이다. 「鳳城誌」(1800년경)에 표현된 “지금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는 표현은 양반들의 관점에서 현상을 순화시킨 표현이다. 사노들의 반란으로 현각선사탑비가 파손되고 사찰이 폐사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 왕실의 神主木(位牌木)을 봉납하는 ‘栗木 主材封山’의 고달픈 노역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비극이다.

1939년경에 일본고고학자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¹¹³⁾와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¹¹⁴⁾가 찾아와 현각선사탑비를 삼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일본 京都로 옮겨가려고 했다고 한다.

이 답사기에서는 신라말 도선대사 중수와 乙酉年(1905년, 원래는 을사년인 1907년)義兵大將高光洵의 순국, 壬子年(1912년, 원래는 1924년)에 이르러 洞里有志 孫範城氏의 再建 사실도 기록하였다.

더구나 三層石塔의 相輪도 缺如된 사실을 기록했고 “東浮屠를 新羅末 眞興王一三七十年前(579년 / 원래는 547년) 道선國師塔”이며 “東浮屠碑는 道선國師事蹟碑이며 北浮屠는 道선國師慈母塔”이라는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 “사리탑을 2좌 세웠는데 하나는 원탑(願塔)이 되고 하나는 그 어머니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 된다. 후인들이 상탑(윗쪽)을 어머니 탑이라 하고 하탑(아래쪽)을 연기조사탑이라 말한다”는 관념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6. 한국전쟁기 수난과 현대 불사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을 위해 벌어졌던 그 유명한 피아골 전투로 세 번째 소실되었다. 폐사가 된 후 사찰 분규와 교통 사정 때문에 재건되지 못하다가 1965년에는 요사채를 겸한 인법당 성격의 소규모 대웅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1981년에 종인화상이 이러한 대웅전을 헐고 그 자리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주불전인 대적광전을 신축하였다. 이어서 1983년에 관음전을 지었다. 1994년에는 종지(宗知)스님이 주석하면서 보다 활발한 중건 불

112) 曉泉 金昌浩, 1949. 7. 10.(3면), <내고장의자랑! 옛美術을 차저서, 感懷의 古僧都 燕谷寺篇>, 東光新聞 第965號(6권), 東光新聞社(광주).

113) 총독부 고적 조사과 기수.

114) 동경제국대 건축과 교수.

사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해에 요사를 증건하고 늘려지었으며 1995년에는 일주문을 새로 세웠고 1996년에는 종각과 수각을 지었다.¹¹⁵⁾ 이후 지속적인 중창불사를 추진하여 관음전, 명부전, 보제루, 삼성각, 일주문, 범종각, 템플스테이 숙소 등 10여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IV. 맺음말

연곡사의 역사적 변천에 관련된 모든 문헌 자료를 모아서 검토해본 결과 여태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연곡사 창건시기와 창건주 연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 역사적 실체에 접근해 보았다. 아울러 고려시대의 현각선사와 진정국사 천책의 중창이 있었음을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임진왜란 시기인 1598년(선조 31) 4월 10일에 왜군들에 의한 방화로 소실되었다. 조선후기의 소요태능이 대대적인 중창을 거듭한다. 이후 동파정심선사가 대웅전을 증건하였다. 1907년 고광순 의병 등 일본군과 전투 중 대부분의 당우들이 소실되었다. 당시 사정을 기록한 『智異山 薦谷寺事蹟記』(1924년)에 의하면 “1907년 9월 9일 고광순(高光洵)으로써 진(陣)을 치고 거주하였던 까닭에 절이 불타고 전해 내려오던 유물들이 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건물은 법당(法堂)이 10채, 왕전(王殿), 천왕문(天王門), 노전(爐殿), 승당(僧堂), 선당(禪堂), 길상암(吉祥庵)이었다.”라 하였다.

1910년에 손범성(孫梵城) 종현선사(宗炫禪師)가 소란(小蘭)을 증건하였다. 1924년 박승봉이 경내에 심우암 창건하여 손범성 스님이 절을 운영하였다. 1928년에 철운당(鐵雲堂) 현주화상(玄周和尚) 대웅전 증건하였다.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 피아골 전투로 소실되었다.

1965년에 대웅전과 요사채를 겸한 인법당 건립되었다. 1981년에 종인화상이 대적광전 준공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불사를 거듭하여 일주문, 종각, 수각, 천왕문, 요사채, 삼홍루, 방장문(종무소), 월유문(주지실), 대적광전, 명부전, 관음전, 삼성각, 템플스테이 숙소 등 10여 동의 건물을 증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115) <연곡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위석, 1996년).

〈전남대 도서관 고서실 자료 검색에 등장하는 연곡사 발행 고서〉

저서명	판사항	필자	발행처	간행년	소장처	
釋迦如來 成道記	木板本	왕말(당), 최육전(조선)	燕谷寺	孝宗 6(1655)	전남대도서관 (고문헌자료실)	順治十二年乙未(1655) 夏智異山燕谷寺開板
觀音靈課	筆寫本	筆寫者未詳	燕谷寺		송광사 성보박물관	
作法龜鑑. 下	筆寫本	巨璇 編	燕谷寺	1851~1861	송광사 성보박물관	咸豐(1851-1861) 白鷄重陰下澣絕筆

【부록 1】 연곡사 연표

연 도	내 용	문헌자료
544년 (신라 진흥왕 때)	인도스님 연기조사(緣起祖師) 창건	『智異山燕谷寺事蹟記』(1924년)
547년(新羅 眞興王 六年 丙寅)	연기조사(緣起祖師) 창건	『求禮續誌』(1925년)
754년 (신라 경덕왕 13)	연기법사(緣起法師)가 화엄사 석탑 봉안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발원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국보 제196호, 발문)
통일신라말 9세기 중후반	도선국사(煙起) 창건	사찰 구전
연대 미상	조선(祖禪) 초창(禪의 조상 도선국사)	『鳳城誌』(1800년경)
연대 미상	逍遙 太能(1562~1649)의 시에 연기조사 (燕起祖師) 창건 <題燕谷寺壁上>	『逍遙堂集』(1800년)
통일신라말 (870년 이전)	삼층석탑 조성(금동여래입상, 고려 초기)	보물 제151호
통일신라말 (870년 이전) 나말여초	동승탑 조성	국보 제53호
나말여초, 고려초기	동승탑비 조성	보물 제153호
고려 초기 (979년 직전)	북승탑 조성	보물 제152호
고려 초기(979년)	현각선사탑비 조성	보물 제154호, 비 판독문 수록 『朝鮮金石總覽』(1919)
12세기 초반 (고려 인종)	한유한(韓惟漢) 연곡사 등지 자취 발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 도	내 용	문헌자료
13세기 초반	무의 혜심(無衣 惠諡, 1178~1234)이 시를 남김 <늦봄 연곡사에 놀러 가 당두(堂頭) 노승에게 주다.(春晚遊燕谷寺贈堂頭老)>	『無衣子詩集』(고려)
13세기 중반 고려 원종 (1260~1274)	眞靜國師 연곡사에 주석 眞靜天頊이 법당 중건	『東師列傳』(1894년) 『智異山鷲谷寺事蹟記』(1924년)
고려 후기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시를 남김 <연곡사 주지 印牛스님에게 서찰과 차를 보내오다.(得燕谷住持印牛書送茶)>	『牧隱集』(1404년)
1481년 (조선 성종 12)	남원도호부 佛宇조에 연곡사와 현각선사비	『東國輿地勝覽』(1481년)
1530년 (조선 중종 25)	(신증)구례현 佛宇조에 연곡사 기재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1580년	청계(靑溪) 양대박(梁大樸)은 연곡사 동암 소재로 지은 시와 유람기를 남김 <燕谷東庵 憶觀師>, 『頭流山紀行錄』	『頭流山紀行錄』 『靑溪集』 (16세기)
16세기 후반	고담(孤潭) 이순인(李純仁)이 연곡사 루각 에 오른 뒤에 시를 남김 <燕谷寺>	『孤潭逸稿』(1891년)
1598년(선조 31) 4월 10일	임진왜란으로 왜군들에 의해 쌍계사, 칠불사, 연곡사 등 사찰 소실	『亂中雜錄』(1610년경)
17세기 초	청매(靑梅) 인오(印悟)는 연곡사 주석	『靑梅集』(1633년)
17세기 초	연곡사 서쪽으로 一里쯤 위의 ‘西窟庵’에 서산대사 수도	『求禮郡史』(1987년)
1627년(인조 5)	소요(逍遙) 태능(太能)에 의해 중건 , 2편의 시를 남김 <題燕谷寺香閣>, <題燕谷寺壁上> 연기조사 초창설을 최초로 주장	『智異山鷲谷寺事蹟記』(1924년) 『逍遙堂集』(1800년)
17세기 초	중관(中觀) 해안(海眼)시를 남김 <題燕谷寺會>	『中觀大師遺稿』(1646년)
1650년(효종 1)	소요대사탑 조성 ‘逍遙大師之塔 順治六年庚寅’	보물 제154호 승탑 탑신석 조성기
1655년(효종 6)	연곡사에서 『釋迦如來成道記』 開板	전남대도서관
1668년	이우(李侯)의 금석문 탁본 서첩에 현각 선사탑비 탁본 수록	『大東金石書』(1668년)

연 도	내 용	문헌자료
17세기 중반경	청학(淸學) 화주 자연석 맏돌(아래쪽)	비지정문화재
17세기 중반경	소란(蘇蘭)이 시를 지음 <蘆谷寺晩秋>	
1686년~1688년	정시한(丁時翰) 유람기 연곡사(燕谷寺) 조계문(曹溪門), 비전에 있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는 빗돌이 깨진 지 7년에 되었고 영자전(影子殿)에는 진각국사(眞鑑國師) 이하 10여 명의 영정 있음	『山中日記』(1686년~1688년)
1728년(영조 4)	이인좌 반란 때 승려 출신인 둔갑술사 송하 (宋賀)와 승려 대유(大有)가 쌍계사와 연 곡사를 거점으로 지리산 산적 수천 명을 모아 이인좌 반란에 가담하려 했으나 실패 하자 지리산에 종적을 감춤	『英祖實錄』(1781년)
18세기 전반경	김도수(金道洙)가 연곡사에 들러 시를 남김<陟與家人避于智異山燕谷寺> 연곡사 유람 계획만 수립	『南遊記』 『춘주유고(春洲遺稿)』 권2에 수록(1699~1733 지음)
1745년(영조 21)	연곡사를 왕실의 神主木(位牌木)을 봉납 하는 ‘栗木 主材封山’으로 삼음	『英祖實錄』(1781년)
1750년대	이언근(李彦根) 유람기를 남김 서쪽 전각 뒤에 도선의 비가 있었다 하였는 데 이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음 절을 계비집의 형국에서 유래 절 앞에는 다릿밭이 매우 높고 십수칸이나 되는 교량이 있고 그 앞에 누각이 있음	『遊方丈錄』(1753, 1756)
1779년(정조 3)	동파당(桐坡堂) 정심선사(定心禪師) 대웅전 중건	『智異山蘆谷寺事蹟記』(1924년)
1799년	今廢	『梵宇考』(1799년)
1800년경	현각선사비가 왜란 후에 문자의 획이 박락 되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 게 되었는데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	『鳳城誌』(1800년경)
1802년	연곡사(蘆谷寺)의 백지(白紙)는 내수사에 소속시킴	『純祖實錄』(1838년)

연 도	내 용	문헌자료
1872년경	현각선사비가 왜란 후에 문자의 획이 박락 되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	『湖南邑誌』(1872년경)
1877년	매천(梅泉) 황현(黃玑)이 시를 남김 <燕谷寺>	『梅泉集』(1911년)
1895년	밤나무 남용으로 사세가 기움	『智異山鷲谷寺事蹟記』(1924년)
19세기 중후반	허주덕진(虛舟德眞, 1806년~1888년)의 수행처(화엄사 구층암과 함께 燕谷寺)	『東師列傳』(1894년)
19세기 중후반	취은(取隱)의 수행처	
19세기 중후반	圓庵得圓(?~1885)은 만년에 연곡사 龍樹庵에서 도반 翠雲慧晤(1866년~1894년)와 함께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수년 동안 수행	『東師列傳』(1894년)
20세기 초	경운(擎雲)은 연곡사(鷲谷寺)에서 환월(幻月)의 제자가 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07년 9월 9일	고광순 의병 등 일본군과 전투 중 소실 건물은 법당(法堂)이 10채, 왕전(王殿), 천왕문(天王門), 노전(爐殿), 승당(僧堂), 선당(禪堂), 길상암(吉祥庵)이었다.	『梅泉野錄』(1864년~1910년) 『智異山鷲谷寺事蹟記』(1924년)
1907년	매천(梅泉) 황현(黃玑)이 시를 남김 <鷲谷戰場 弔高義兵將光洵>	『梅泉集』(1911년)
1910년	소요대사 문하의 손범성당(孫梵城堂) 종현선사(宗炫禪師) 소란(小蘭) 중건	『智異山鷲谷寺事蹟記』(1924년)
1924년	박승봉 경내에 심우암 창건 / 손범성 스님이 절을 운영	『한국불교인명사전』
1928년	철운당(鐵雲堂) 현주화상(玄周和尚) 대웅전 중건	『智異山鷲谷寺事蹟記』(1924년)
1950년	한국전쟁 - 피아골 전투로 소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65년	대웅전과 요사채를 겸한 인법당 건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1년	종인화상이 대적광전 준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3년	종인화상이 관음전 준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년	종지(宗知)화상이 일주문 준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6년	종지(宗知)화상이 종각, 수각 준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0년대~2010년대	천왕문, 요사채, 삼홍루, 방장문(종무소), 월유문(주지실), 명부전, 삼성각, 템플스테이 숙소	

참고문헌

황호균, 2020, 「연곡사 석조문화재 양식적 특징과 조성배경 연구」, 『종교문화학보』
17,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177쪽~183쪽. 참조.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